

Sulwhasoo

Vol.59 November/December 2013





탄생, 금빛으로 시작하다

오방색 중 황색은 조화로운 균형을 의미한다. 부부가 후손을 낳아 강건히 기르고 학문과 도리를 가르침은 부모된 도리이자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가장 복된 일이다. 예부터 자식이 태어나면 삼칠일간 대문에 황색 금줄을 걸고 보냈던 신성한 기간은 자연의 조화로운 섭리를 따르고자 다짐하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금빛 명주실은 김숙진우리웃, 김영준 옷칠명인의 작품, 타발 옷칠 원목함은 정암아트갤러리, 권성은 작가의 도자기 만년필과 잉크병은 근대화상회.

韓

雪花秀

어려 보이는 얼굴의 비결- 팔자에 일침을 놓다 설화수 예소침크림&패치

1cm 더 패일 때마다 6년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팔자주름-
주름으로 굳어진 피부부터 풀어주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팔자부위를 이중으로 집중 케어하는 예소침크림&패치-
주름기능성크림이 얼굴 전체 탄력이 무너져 생긴 팔자주름을 관리하고,
붙이는 한방필러패치로 피부 팔자부위를 자극하여
앞서 바른 크림의 영양성분을 피부 속에 흡수시켜 탄력을 개선합니다
되돌리고 싶은 팔자, 이제 예소침크림&패치로 팽팽하게 다스리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예소침크림&패치

Sulwhasoo



효소처리 홍삼사포닌과
히알루론산 성분의
한방필러패치





복주머니라 이름 지은 순박한 마음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고, 외출할 때 옷에 매달기도 하는 둥그스름한 모양의 실용적인 주머니를 '복(福)주머니'라 불렀다. 입구를 꼭 조여두면 그 안에 담긴 것은 모두 복이 될 것이라 여기던 선하고 순박한 마음이다. 알곡이 그득 차 복주머니 모양이 된 석류는 다산의 상징이었다. 후손을 '복' 그 자체로 여기던 옛사람의 마음이 전해진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3호 김은영 매듭장의 진주낭은 KCHF갤러리숍, 도자 석류 오브제는 우일요, 김영준 옷칠명인의 작품 자기함은 정암아트갤러리 판매. 지음생크림은 인삼 뿌리에서 열매까지 더욱 강화된 인삼 성분이 피부 안팎을 케어하여 노화된 피부를 가꾸어주는 한방 고농축 인삼 크림이다.



황금빛 용의 기운을 받으라

하늘로 기운차게 승천하는 용 문양은 입신양명을 상징한다. 옛사람들은 입신양명을 '효도의 마침'이라 여겼다.

출세의 공을 부모의 덕으로 돌리고, 이마지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자식된 기본 도리가 아니겠는가.

용 손자수보는 담연 남자머리 장식인 상투관과 옥로, 뒤표지의 밀화가라지와 호박가라지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7호 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표지의 금진과 받침대는 스페이스두루.

위로는 태양이며 아래로는 땅이로다, 자황색

According to the Book of King Gojo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 servant who looked after the royal tombs reported to the King, “When I observed the color of the soil carefully, its radiant gamboge color became even more beautiful as I dug deeper.” The King was relieved to hear this, as it was a sign of good fortune. Gamboge was considered the color of the emperor since the Silla Dynasty, and it was forbidden for both the commoners and the nobles. Since it was used to describe the quality of the soil, you can assume that its gamboge shade of red and yellow was even an indicator of good fortune. Among Korean ancestors, yellow was the center of life and moderation. It was the color of the sun in the sky and the color of the soil on the ground, so it was nature itself embracing the Universe. They thought that people were a part of nature. Since everything that blooms and fades in nature is red and yellow, yellow was also used to celebrate people’s lives. The string of the purest yellow was hung at the gate when a life was born. Wardrobes were embroidered with golden yarns to pray for prosperity, and the dead body of the deceased was returned to the soil after death. Yellow, considered the central color of the Universe, wa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people’s lives.

〈조선왕조실록〉 고종 편의 한 대목을 보면, 능을 둘러보고 온 대신이 ‘흙의 색깔을 간심(看審)하니 자황색(赭黃色)에 윤기가 흘렀다’며 ‘점점 깊이 파들어 갈수록 윤기 도는 자황색이 처음보다도 더욱 좋았다’고 아뢰는 부분이 나온다. 이를 들은 왕은 길상(吉相)이라 여기며 이제 근심을 놓는다 하였다. 신라시대부터 황제의 색깔로 여겨 일반 백성은 물론 진골에게조차 금지하는 복색이었던 자황색을 능의 토질에 비유하였던 점을 보면, 붉고 누른 빛깔의 자황색이 길함의 잣대가 될 정도로 중요한 색이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에게 황색은 삶의 정중앙을 차지하는 색으로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색이었다. 위로는 태양의 빛깔이며, 아래로는 땅의 빛깔이니 만물을 감싸고 있는 자연 그 자체다.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로 여기던 선조들이다. 자연에서 일고 지는 모든 것의 빛깔에 붉고 누른 빛깔이 돌지 않는 것이 없듯, 사람의 삶도 황색과 함께 치렀다. 태어나면 가장 순수한 황색으로 엮은 줄을 대문에 걸어 이웃에 새 생명을 고하고, 입신양명을 염원하며 금빛 실로 수를 놓고, 일생을 마치고 죽은 몸은 흙으로 돌려보냈다. 선조들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빛깔로 여긴 황색은 사람의 일생을 짓는 시작과 끝인 것이다. S

에디터 김화성 사진 이종근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814-0250), 근대화상회(02-3676-2234), 김숙진우리옷(02-548-2588), 담연(02-546-6464), 스페이스두루(02-783-1354), 우일요(02-763-2562), 장암아트갤러리(02-737-2333), KCDF갤러리숍(02-733-9041)





한국인의 미소에 흐르는 한국미를 탐구하다 이경(怡耕) 조요한

영문부니수미사
© 국립경주박물관

이경 조요한 선생은 서양 미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미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미학자이다. 1926년 함북 경성에서 태어나 서울대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미학자로서는 거의 최초로 1968년도에 '한국 조형미의 성격'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미에 예술 철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희랍철학 중에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예술철학에 능통한 인문학자로서 수화 김환기 화백과의 만남으로 예술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어 후에 대표적 저서인 <예술철학>을 집필하였다. 한편 현실 참여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유신시대, 1980년 봄과 같은 험난한 시절에는 교수직에서 해임되기도 하였다. 이후 복직하여 숭실대학교 총장, 환기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2002년 3월 질병으로 작고하기까지 한국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필자는 선생을 미학 및 미술 관련 학회에서 자주 뵙곤 하였다. 선생의 한국미와 미의식에 대한 관심은 미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연과 삶, 음악과 문학, 문화, 종교철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규칙을 무시하면서도 취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는 무교적(無教的)인 영향에 의한 것이며 한국미술의 비균제성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미에는 농경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자연 순응적인 '질박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가령 굴곡진 나무를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 등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생은 자연에의 순응과 비균제적인 질박미가 흐르는 한국의 미소(微笑)에 대하여 많은 사색을 하였다. 특히 경주 남산 배리의 삼존석불입상을 우리나라에서 염화미소가 가장 잘 드러난 경우로 꼽았다. 염화미소는 불교적인 것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미소이자 깨달음의 미소다. 특히 이 입상은 전체적으로 균제미가 부족하면서도 고졸미와 적조미를 담고 있는 염화미소(拮華微笑)를 머금고 있어 한국미를 가장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여러 유물들에서 나타나는 미소를 한민족의 민족성에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미로 꼽았다.

또한 서산마애삼존불과 1934년에 경주 흥륜사지(興輪寺址)에서 출토된 소면와당에서 각각 백제인과 신라인의 미소를 만날 수 있다고 여겼다. 조요한 선생은 이 미소를, 어려운 현실도 해학이나 풍자로 받아넘길 수 있는 여유로운 미소라고 했다. 사람은 웃음 속에서 절망을 잊어버릴 수 있고 짓궂게 풍자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기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탈놀이나 별신굿, 전통 민요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미소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강약과 장단의 음률에 맞춘 대화와 몸짓, 춤사위와 노래 등에 의한 농도 진한 비유로 당시 양반 문화의 모순을 폭로하며 백성들에게 후련한 분풀이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 바로 한국인의 미소라 여겼다.

선생은 여러 이론가들이 한국의 미를 비균제적·비정형적인 미라 규정한 것에 대해 공감함과 아울러 석굴암 본존불이나 금동용봉부래산향로 등에서 보이는 고전적인 미감에 더 깊은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금동용봉부래산향로에서 드러나는 고전적인 면과 석굴암 본존불의 단순하면서도 형식이 정제된 완벽함을 한국불상의 진수라 여겼다. 이러한 불상들은 한국미의 미소 같은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간직한 것으로서 장차 한국의 미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의미심장한 미소가 될 것이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정준석(미술평론가,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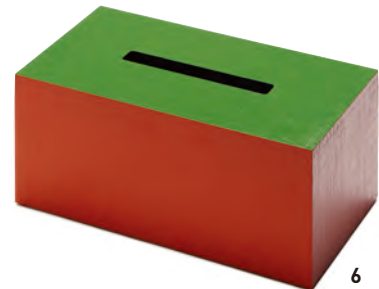


1 조요한 선생은 경주배리 삼존 석불입상(보물제 63호)을 우리나라에서 염화미소가 가장 잘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2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이경(怡耕) 조요한(1926~2002).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숭실대학교 교수를 거쳐 동대 학교의 총장, 환기미술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예술철학>, <한국미의 조형> 등이 있다. (사진제공 문화재청, 미술문화)



집 안에 들이는 나무 한 그루

서늘한 공기가 가득한 집 안에 나무로 만든 오브제의 따스한 온기를 더해 본다.



겨울철 차가운 바람이 시리게 창문을 두드린다. 집 안의 공기마저 삭막하게 느껴지는 이 계절, 자연 소재가 주는 따스한 매력으로 집 안에 온기를 더해 보자.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은 세월이 지날 수록 손때가 묻어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정감을 갖고 있다. 우리 선조들 역시 나무로 가구부터 소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 특히 오동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가장 애중하던 나무다. 팔이 있는 집이라면 시집 보낼 때 가구를 해가야 하는데 오동나무만큼 좋은 재료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나무 문양이 곱고 가벼워 악기재나 책함, 가구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별다른 재료가 없던 시절, 나무만큼 사용하기에 편리하면서 견고한 재료도 없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오동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재료로 생활 소품이 만들어진다. 견고하지만 따스하고 투박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모던함도 느낄 수 있는 나무 소품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빠져보자.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점(02-541-6480), 하이랜드코리아(02-797-3553), 우일요(02-763-2562), 최승천(010-8756-9365), 메종르베이지(02-749-5667), 스킨(02-3444-0608), 엘스토어(02-790-8408), 체어스온더힐(02-747-7854), 오색채담(02-566-5375)

1 라피아 소재로 자연적인 느낌을 강조한 펜던트 조명은 김도훈 작품으로 엘스토어, 2 전통 꽃 문양을 응용한 반짋고리는 최승천 작품, 3 호두나무, 참나무, 뽕나무 등 다양한 나무로 제작된 비늘꽃이는 반깁, 4 나무 몸체에 세라믹으로 만든 하얀색 꽃으로 장식한 주얼리 함은 메종르베이지, 5 물고기가 그려진 도자 에스프레소 잔과 나무 받침은 자연공간도, 6 레드와 그린 컬러 대비가 인상적인 옷칠된 티슈 케이스는 박만순 작품으로 하이랜드코리아, 7 대나무로 만들어진 나뭇잎 모양의 접시는 스킨

8 호두나무로 만든 스톨은 체어스온더힐,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펜던트 조명은 양용걸 작품으로 엘스토어, 도자와 나무 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화병은 안정현 작품으로 KODF갤러리, 9 투박한 질감이 멋스러운 버터 나이프는 정소영의 식기점, 10 화려한 모란이 새겨진 찻상은 김석태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판매, 11 나무로 테두리와 손잡이를 장식한 거울은 최승천 작품, 12 옷칠한 물푸레나무 다리 위에 자작나무 합판에 삼베를 발라 옷칠한 사이드 테이블은 하이랜드코리아, 13 민화가 그려진 나무 트레이는 오색채담, 14 다람쥐 모양의 아이디어 넘치는 구두 주걱은 최승천 작품.



포근하고 따뜻하게

매서운 찬바람도 이겨낼 만큼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체온을 올려줄 포근한 패션 소품들을 이용해 보자.



2



3



4



5



6



7

1 진베이지 색의 링크 트리밍 손누빔 배지는 규중칠우. 2 두툼한 질감으로 보온성을 강조한 양모로 만들어진 핑크 슬리퍼는 펠터블. 3 알파카와 메리노 울로 만들어진 브라운 컬러의 모자는 펠터블. 4 외출할 때 걸치기에 좋은 손누빔 숄은 미르. 5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비단 마스크는 KCDF갤러리숍. 6 은은한 광택과 포근한 촉감을 특징으로 하는 실크와 모를 혼방해 만든 숄은 단주. 7 염색을 하지 않은 내추럴 양모 실내화는 펠터블.

유독 한파가 심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무리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는다. 두툼한 잠바나 재킷도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았던 방한을 위한 지혜를 빌려보는 것도 좋겠다. 선조들은 외출을 나갈 때 오늘날 모자 역할을 하는 방한용 난모를 머리에 써 보온을 했고 이 난모 하나를 써도 보석이나 매듭 장식을 이용해 멋을 잃지 않았다. 또 털을 덧댄 배지를 입어 보온을 유지했고, 여성들의 경우 토시를 꺼서 추운 손과 손목을 감쌌다. 솜토시, 누비토시, 털토시가 종류별로 있었다. 또 걸감은 대부분 비단으로 만들고 안감은 펠트나 털을 넣어 만들었다. 사이즈도 다양해 작은 것은 팔목을 가릴 정도의 길이에서 큰 것은 저고리 위로 덧껴어 어깨까지 닿도록 팔 전체를 감쌀 수도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토시 역시 걸감 위에 고운 수를 놓아 장식한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길 줄 알았던 선조들의 미감이 감탄스러울 뿐이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미르(02-733-6881), 근대화상회(02-3676-2231), 성진모피(02-543-7685), 김숙진우리옷(02-548-2588), 규중칠우(02-544-8853), 펠터블(02-396-7595), 단주(02-720-1127), KCDF갤러리숍(02-733-9041), 한복렌(02-517-6830).



8



9



10



11



12



13

8 옥 장식이 되어 있는 털토시와 털 남바위는 한복렌. 9 귀를 덮을 수 있어 보온성을 강조한 손뜨개 털모자는 단주. 10 알록달록한 꽃 장식이 돋보이는 난모(귀마개)는 김숙진우리옷. 11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고운 색의 머플러는 근대화상회. 12 두툼한 모피 장식이 돋보이는 가죽 장갑은 성진모피. 13 두 가지 실을 번갈아 써서 앞면과 뒷면의 색감이 다르게 만드는 독특한 손뜨개 기법으로 만든 머플러는 단주.

꽃신 Flower Shoes

한 송이의 꽃이 발 끝에서 만개하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아찔할 정도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발이 아무리 불편해도 하이힐을 신고 걸어 다니는 것은 그만큼 다리의 맵시를 잘 살려주기 때문이다. 패션 완성의 정점을 찍어주는 하이힐은 여성의 관능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신발로 자리 잡았다.

옛 여인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발에 대한 애착은 컸다. 조선시대에는 가죽으로 만든 신을 총칭해 '혜(鞋)'라고 불렀다. 혜 가운데서도 '수혜(繡鞋)'는 신 전체에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목이 짧은 신의 하나로 흔히 '꽃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삼국사기>를 보면 수를 놓은 신발이 신라시대에 이미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애용될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사대부가의 젊은 부녀자들은 이 꽃신으로 맵시를 뽐냈고, 가장 애증하는 신발이기도 했다. 오늘날 신발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문 제작하듯 수혜를 만드는 장인에게 부탁해 자기 취향에 맞는 꽃무늬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개화기 이후 일반 부녀자들이 혼인할 때 시댁에서 반드시 꽃신을 장만해 주었는데, 이때 혼수로 받은 꽃신은 신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 잠깐씩 아껴 신을 정도로 오늘날 명품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 수혜는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일흔두 번의 손이 갈 정도로 정성이 대단하게 들어간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예부터 신을 짓는 사람인 갓바치가 닷새 일하고 사흘을 쉬는 말이 있을 정도였을까.

혜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 유려한 곡선에 있다. 바닥에 놓인 혜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바다를 동동 떠다니는 조각배가 연상된다. 기와의 추녀 끝처럼 하늘을 향해 살짝 솟아오른 모습은 곡선의 섬세한 형태를 그려낸다. 더군다나 신기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신발의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신다 보면 발 모양이 저절로 신발에 새겨져 사람에게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운 자수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킬 정도다. 가죽으로 만든 신에 이처럼 고운 무늬가 새겨지다니. 신기 아까울 정도인 것은 물론 하나의 예술 작품에 비견할 만하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대준 도움 주신 곳 황해병(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Many traditional women were as fascinated with beautiful shoes as modern women are. In the Joseon Dynasty, shoes were made of straw, silk or wood, and those made of leather were commonly called 'Hye.' In particular, Suhye was a pair of low-necked shoes embroidered with beautiful patterns, and

was also called 'flower shoes.'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tells us that embroidered shoes were already popular in the Silla Empire. The love for these shoes has a long history, 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Young women from noble families boasted their beauty with flower shoes and highly valued such shoes. Just as many people today custom-order shoes to fit their taste, it was possible for traditional women to ask the master craftsmen who made Suhye to use on them the floral patterns they liked.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 groom's family bought flower shoes for the bride when commoners wed. Women only wore such shoes on their honeymoon or for very special occasions and considered them as today's premium designer shoes. Each pair of Suhye required 72 devoted processes. It was so arduous and exhausting to make that the shoemakers, Gatbachi, worked for five days and rested for four. The beauty of Hye lies in its smooth curves.

If you look closely at a pair of Hye, you would be reminded of a boat floating in the ocean. The slightly pointed tips, which look like traditional eaves, draw very delicate curves. What is amazing is that the shoes seem to have no right and left at first, but soon adjust to the shape of the wearer's feet as they are worn. That is not all. The silk that covers the leather and the fine embroidery is as artistic as an Oriental painting. How could one lay such beautiful patterns on leather shoes? They are not only too valuable to be worn on the feet, but even compare to works of art.

피부의 생기, 가볍게 만들라

피부 표현이 두꺼워질수록 나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어린 얼굴을 만들고 싶다면 결점을 가리기보다 생기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옮겨올엔 피부의 답답함을 벗고, CC유액과 실란 콤팩트, 실란 컬러팩트로 은은한 광과 생기를 살려라.



우리 선조들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화장품을 제조했을까를 가늠하고 원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미 300여 년 전부터 대량으로 화장품이 제조되고 유통되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속중시대에는 ‘매분구’라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여인의 얼굴을 하나의 나라로 비유한 조선 후기의 소설 <어용국진>에는 여인의 화장술이 국가 경영과 견줄 정도로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선조들은 뽀얀 피부 표현을 위해 분세수를 했는데 이는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갈한 모습을 도리로 여겼던 사대부가의 남자들도 물에 갠 분을 바른 뒤 다시 세안하였는데, 이는 화장을 통해 인상을 품위 있게 하려 했음이다. 조선시대 가정백과사전으로 꼽히는 <규합총서>를 보면 특별히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 형태를 그리는 법이 형태별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역시 화장을 통해 인상, 즉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요즘에 와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으뜸은 바로 피부다. 본연의 건강한血色이 유지되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살아 있는 피부야말로 그 사람을 귀티나게 해준다.

설화수의 한방 과학은 마치 피부에 유약을 바른 듯 매끄럽고 은은한 광채를 선사하고 잡티와 기미를 커버하는 설화수 CC유액을 탄생시켰다. 설화수 CC유액은 단시간에 부드럽게 발리고 원하는 피부톤을 얻을 수 있는 데서 기인한다.

설화수 CC유액에는 스킨케어 보습 성분이 53% 이상 들어 있는데, 그

It is not very easy to estimate when and why Korean ancestors began to make cosmetics, but it has been found that cosmetics have been mass-produced and distributed for at least 300 years. There are historical records that ‘Maebungu’ traveled door to door to sell cosmetics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Eoyong-gukjeon>, a novel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comparing a woman’s face to a country, writes that women’s makeup skills are as important as ruling a country. Korean ancestors used powder wash to create clean skin, and this was not just among the women. Noble men who sought to be refined also applied powder dissolved in water to cleanse their faces. This shows that they tried to beautify their faces with makeup. According to <Gyuhapchongseo>, the household encyclopedia from the Joseon Dynasty, the different shapes of the eyebrows are described, showing us that creating a refined image with makeup was considered important.

Today,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determine one’s image, but skin is the most definitive factor. The skin with a naturally healthy complexion and radiance is considered as a symbol that makes a person look dignified.

Sulwhasoo’s Korean Medicine Science has formulated Sulwhasoo CC Emulsion, which instantly creates subtle radiance, and covers blemishes as if the skin has been lacquered. Many people say that Sulwhasoo CC Emulsion applied smoothly for the skin tone you desire.

유액 분산 기술이 피부에 촉촉함과 탄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잡티를 커버하여 투명한 도자기 피부로 완성해 주는 설화수 CC유액. 정경선 작가의 원형 자개 트레이는 KCDF갤러리숍, 맑은 광채가 흐르는 원형 오너먼트는 아띠고디자인



중 설화수 스킨케어 라인에 사용되고 있는 맥문동 추출물과 자음단, 행인(살구씨) 오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부 결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동시에 탄력감을 주고, 뭉침 없이 부드럽게 발려 유약 광을 입힌 도 자기처럼 매끈하고 광채 있는 피부로 표현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설화수 CC유액을 사용한 뒤 가볍게 피부 보정을 하고 싶다면 실란 콤팩트와 실란 컬러팩트를 사용해 보자. 실란 메이크업은 미세한 에어 채널 파우더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답답함 없이 피부색을 보정할 수 있게 한다. 매화 꽃잎에서 추출한 성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매화의 은은한 향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고품격 한방 콤팩트인 실란 콤팩트는 베이스 메이크업 후에 사용하거나 화장을 간단히 고치고 싶은 순간에 가볍게 두드리듯 사용하면 들뜸 없이 한결 투명하고 고운 피부톤을 얻을 수 있다. 은은한 색(1호)과 차분한 색(2호) 두 가지 색상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부의 혈색을 한층 살려줄 실란 컬러팩트는 하이라이터 겸용 블러셔. 라이트핑크, 딥핑크, 라이트옐로, 라이트퍼플, 퍼플로 이루어진 5가지 색상을 섞어서 사용해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고, 원하는 색상을 볼 부위 등에 발라 포인트를 주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실란 컬러팩트는 홍화, 신이, 오미자를 이용한 천연 유래 캡슐 파우더로 색을 내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색감이 일품이다.

실란 메이크업은 미국 등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의 미를 대

매화 꽃잎에서 얻은 추출물이 섬세하고 맑은 피부로 표현해 주는 고품격 한방 콤팩트, 실란 콤팩트는 답답함 없는 가벼운 사용감이 특징. 매화꽃을 포목 상감기법으로 재해석한 '매화 상감' 무늬의 패키지가 소장가치를 높였다. 은백색의 자개 트레이와 조개는 진주셀.

Sulwhasoo CC Emulsion contains more than 53% hydrators. The formula is composed of ingredients of the Sulwhasoo skincare lines, including Ophiopogon japonicus root extract, Jaumdan, apricot kernel oil. This is the secret of naturally covering the skin texture to achieve radiance as bright as lacquer on porcelain.

If you want a little more enhancement after using Sulwhasoo CC Emulsion, try ShineClassic Powder Compact and ShineClassic Multi Powder Compact. ShineClassic Makeup contains micro air channel powder to correct your skin tone without feeling heavy. The extracts of Prunus mume petals protect the skin from external aggressors, while the subtle scent of the Prunus mume comforts the mind.

ShineClassic Powder Complex is the premium pressed powder that you can use after base makeup, or take anywhere for simple makeup correction. It will give you the transparent and fine skin tone you desire without caking. You can choose between Natural Beige (No.1) and True Beige (No.2).

ShineClassic Multi Powder Compact is the highlighter plus blusher that brings life to your skin. The combination of light pink, deep pink, light yellow, light purple, and purple can light up the skin tone, or you can choose any color you want for emphasis. ShineClassic Multi Powder Compact creates color with natural capsule powder dyed with Safflower, Magnoliae flos, or Schisandra fructus for natural yet vivid colors.

ShineClassic Makeup has become the icon of Korean aesthetics



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의 왕, 뉴욕에 가다' 행사와 미국 럭셔리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실란 메이크업이 전시되고, 2012년, 미국 니먼마크스 백화점 42개 매장에서 바이어가 직접 선택한 과거 5가지 실란 디자인이 재출시되어 판매되는 등 뷰티 트렌드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주목을 받은 제품이다. 이는 설화수의 한방 뷰티 과학을 바탕으로 매해 출시된 리미티드 제품에 한국미를 모던하게 적용한 실란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시너지 효과를 낸 덕분일 것이다. 올해 실란 메이크업은 '매화 상감'이란 콘셉트로 출시되었다. 한국 여인을 가장 닮은 꽃으로 여겨지는 '매화꽃'을 한국의 전통 금속공예 제작법인 '포목 상감기법'으로 재해석한 실란 메이크업 '매화 상감'은 마치 매화꽃이 층층이 포개진 듯 만개한 매화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이다. 포목 상감기법을 내용물에까지 적용하여 제품의 뚜껑을 열면 마치 한 폭의 매화 그림이 그 안에 담긴 듯 예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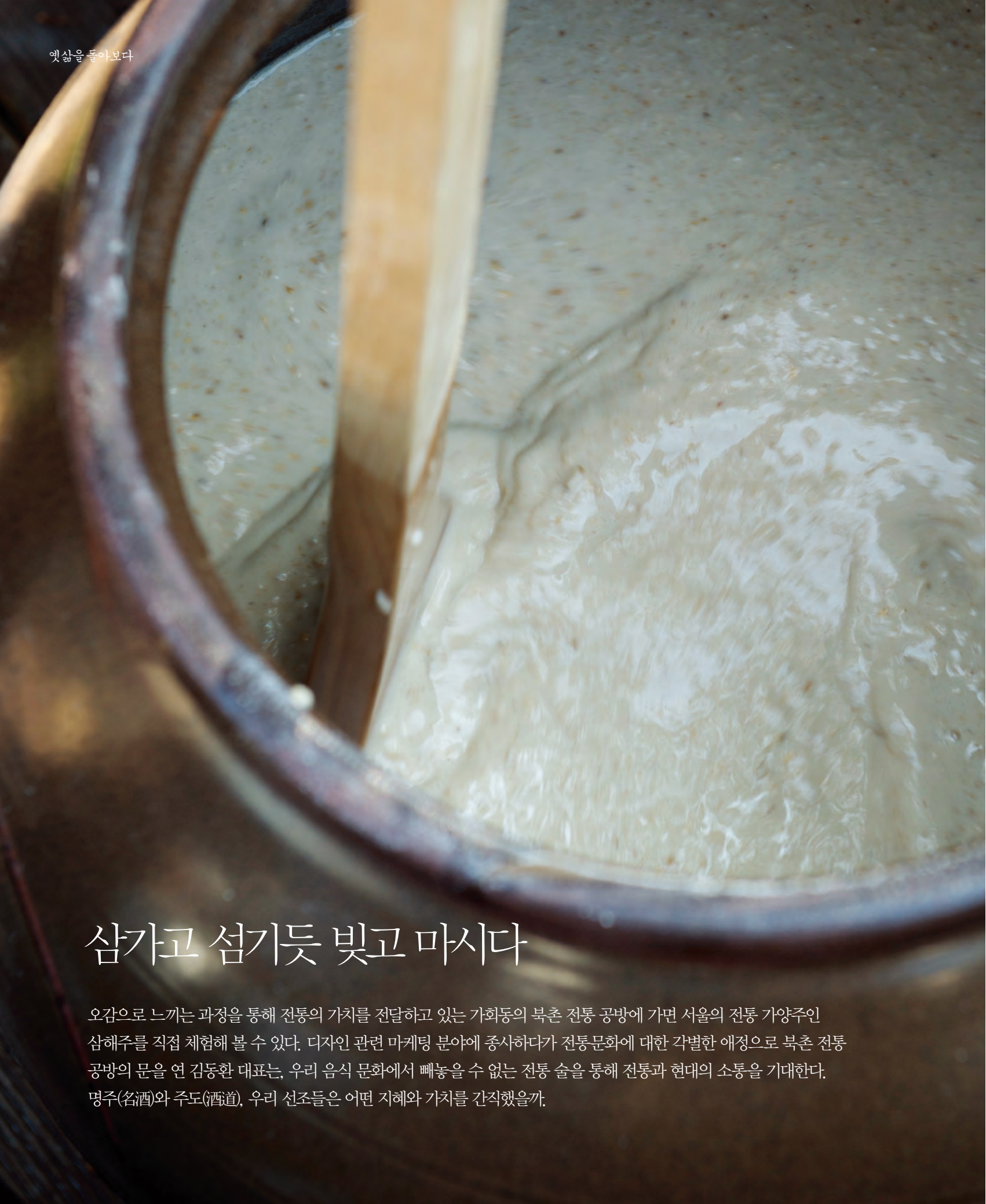
생기 있고, 윤기 있는 피부야말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무기와 다르지 않다. 설화수 CC유액과 실란 콤팩트, 실란 컬러팩트를 통해 이미지를 완성해 보자. 더구나 하나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실란 메이크업을 핸드백에서 꺼내는 당신이라면, 이미지는 더욱 특별해지지 않겠는가.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814-0250), 아띠띠 디자인(02-3443-8170), 정암아트갤러리(02-737-2333), 진주셀(02-2253-7585), KCDF갤러리숍(02-733-9041)

after gaining popularity abroad, especially in the U.S. It was exhibited in "The Kings of Joseon Visit New York" at the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in 2011, and at Bergdorf Goodman in New York. In 2012, The five designs of ShineClassic Makeup were sold at the 42 locations of Neiman Marcus across the U.S., the pioneer in beauty trends. It is starting to become popular because of the synergies created by Sulwhasoo's limited edition product lines each year, based on the science of Korean medicine and the beautifully modernized designs of Korean aesthetics. The theme of this year's edition of ShineClassic Makeup is 'Prunus mume inlay'. It has reinterpreted the Prunus mume, the flower that resembles Korean women, with the inlay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metal craft. It is a truly charming design filled with the beauty of fully bloomed Prunus mume in layers. The inlay method is even applied to the powder itself so you will see a piece of the artwork when you open the cover.

A vibrant and radiant skin enhances your look. Complete your look with Sulwhasoo CC Emulsion, ShineClassic Powder Compact, and ShineClassic Multi Powder Compact. ShineClassic Makeup is as beautiful as a piece of jewelry, and it will certainly make you stand out in a crowd when you take it out of your handbag.

아름다운 매화 꽃잎처럼 화사한 빛깔의 피부로 표현하고 싶다면 하이라이터 겸용 블러셔인 실란 컬러팩트를 선택하자. 은은한 색감이 혈색을 살려주고 고운 필이 얼굴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내용물에도 포목 상감기법이 담겨 예술적인 감각까지 돋보이는 한방 컬러팩트다. 김영준 옷칠 명인의 작품인 비진틴 나전함은 정암아트갤러리, 산호 노리개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7호 옥장 엄익평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삼가고 섬기듯 빚고 마시다

오감으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가회동의 북촌 전통 공방에 가면 서울의 전통 가양주인 삼해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디자인 관련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다가 전통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북촌 전통 공방의 문을 연 김동환 대표는, 우리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술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소통을 기대한다. 명주(名酒)와 주도(酒道),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지혜와 가치를 간직했을까.

신은 물을 만들었고, 사람은 술을 만들었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술을 사랑해왔다. 삶의 여유를 향유하는 방법으로, 춤과 노래와 더불어 술 이상 좋은 것이 없었다. 그렇다. 술은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삶의 양념이자 위로가 되었다. 하여 술을 빚는 일은 또한 가장 정성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우리 선조들은 섬기고 모시듯 정성을 다해 술을 빚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도를 익히고 다스렸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가양주 문화라고도 합니다. 집에서 만든 술인 가양주가 한 집안의 전통이 되고 소통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술을 만드는 마땅한 곳이 없으니 가양주가 발전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가양주는 600여 종이 있었다고 하며 그 가운데 레시피가 전하는 것은 250여 종, 현대에 재현된 것은 70~8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에서 술을 담근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 위함이지요. 가양주 만드는 것이 정성스러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술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신명에 대한 신성한 제물이자 늙고 병든 사람의 혈기를 돋우어주는 약물. 그리고 손님 접대와 집안 어른의 반주용으로든 빠질 수 없는 귀한 술은 그렇기에 함부로 다루질 수 없었다. 금기는 술 빚기의 또 다른 정성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중 하나. 첫 술맛은 반드시 안주인만이 보아야 하며, 제삿술을 떠낼 때도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술을 빚을 때 부정한 사람과 뭍쓸 병에 든 사람, 임신부는 모두 금하라 했다.

김동환 대표는 삼해주를 통해 전통 가양주를 빚는 과정에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나갔다. 삼해주는 음력 정월 첫 해일(亥日) 해시(亥時)에 술을 빚기 시작해 12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돌아오는 해일 해시에 모두 세 번에 걸쳐 빚은 서울의 전통 가양주다. 처음 술을 앉힌 지 36일 또는 96일 만에 술이 익게 되므로, 재료는 물론 공력까지 세 배에 이르러 깊은 맛을 내는 고급술이 완성되는 것이다.

“풍속에 따르면 술 빚는 날로 해일(亥日)을 선호했는데, 이는 12지신(十二支神) 가운데 돼지의 피가 가장 맑은 색깔을 띠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술은 그 빛깔이 맑고 밝아야 맛과 향이 좋으므로, 돼지 날(亥日)을 술 빚는 날로 잡았을 거라는 것이죠.”

고려시대부터 빚어져 여러 가지 방법이 전해오는 삼해주는 이미 언급했거니와 세 번에 걸쳐 빚어 ‘삼양주라 불리기도 했다. 삼해주를 증류해 소주를 만들면 고급 소주가 완성되는데 그 양이 30%에 불과했다. 탁주에서 청주, 그리고 다시 소주까지 90여 일의 과정을 거치고 온갖 정성을 곁들여 빚어낸 정제된 술. 그야말로 조상에게, 손님에게 내놓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술이 아닌가.

아울러 술을 빚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으니, 바로 ‘주도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의 향음(饗飲)조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도 이미 주례를 매우 중하게 여겼다고 전한다. 또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육례(六禮) 중 음주에 관한 예를 가르친 ‘향음주례(饗飲酒禮)’를 통해 전



1 김동환 대표는 단순히 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 체험하며 다시 한 번 기억되는 전통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자 북촌전통공방의 문을 열었다. 전통의 가치 전달뿐 아니라 승계와 보급은 항상 그의 화두이다. 2 북촌전통공방에서는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전통주와 치즈와의 만남, 송편 사식 및 강연회 등 참신한 아이디어는 현대인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전통의 가치를 느끼는 계기가 된다.



1



2

1 삼해주는 새해 첫 돼지 날(亥日) 술을 빚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 90여 일 만에 탁주를 완성한다. 이를 다시 청주로 증류해 소주로 만들면 그 양이 불과 30%에 머문다. 그만큼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술인 것이다. 2 고두밥을 지어 술을 빚기를 12일, 혹은 36일 간격으로 세 번을 반복한 삼해주는 막걸리인 탁주와 청주, 그리고 소주 등 세 가지 종류를 맛볼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맛이 깊고 부드럽다는 것이 특징.

통 주도의 정수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 건너온 어린이들을 위한 수신서 <소학>을 통해 선조들은 어른을 모시고 술 마시는 법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각별히 가르치기도 했다. 그 가운데 향음주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옷을 단정히 갖춰 입고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행동이 분명하고, 의젓하며 존경하거나 사양하거나 감사할 때마다 즉시 행동으로 표현해 절하거나 말하는 등 술을 마실 때 예의와 품위와 건강을 잃을 것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르는 데마다 절하고, 잔이나 손을 씻을 때마다 절하고, 받을 때마다 절하고, 줄 때마다 절하고, 끝날 때마다 절하여 지극한 정성을 나타낸다.' 즐거우나 취하면 자칫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염두에 두고, 예를 다해 삼가고 경계하는 것이다. "성균관 명륜당에서 조선시대 주도를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무려 총 13단계, 3시간 동안 그 과정이 이뤄지는데, 술 한 잔이 오갈 때마다 몇 차례씩 절하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취할 겨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중하고 삼가는 마음이 그대로 주도에 담겨 있다는 뜻이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조화와 공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술 문화는 서로 술을 따라놓고 같이 마시는 대작(對擗)과 더불어 마시는 사람끼리 술잔을 주고받거나 술잔을 돌려 마시는 수작(授爵)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다. 식기는 인격의 연장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술잔을 돌려 마시는 행위를 통해 서로 다른 인격체가 정신적으로 결속되었음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시대 왕과 신하가 포석정에서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워 돌려 마셨던 것도 군신일체를 다짐하는 의식이었다. 조선시대 보부상들은 동료를 표현할 때 '대포지교(大飽之交)'라 칭하기도 했다. 대포, 즉 큰 바가지로 술을 나눠 마신 사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조들은 술을 마심에 있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중시했다. 술을 강제로 권하지 않았던 것이다. 석 잔은 훈훈하고, 다섯 잔은 기분 좋고, 일곱 잔은 흡족하나, 아홉 잔은 지나치니 그 이상 술잔 돌리기를 금하는 것, 그리고 세 번까지 권하나 상대방이 끝내 종사(終辭)하여 사양한다면 더 이상 권하지 않는 예절은, 술자리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면서도 술로 상대를 괴롭히지 않으려는 배려였던 것이다.

삼가고 경계하면서도 자유롭게 즐기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던 조화와 공존의 지혜. 삼가고 섬기듯 빚고 마시는 전통의 주도를 새기고자 함은, 비록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이기 때문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공경'과 '존중'이라는 인간을 향한 가장 본질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까닭인 것이다. S

글 김영우 사진 왕태균



1



2

1 북촌 전통 공방에서는 삼해주 체험의 기회가 열려 있다. 하여 북촌 전통 공방의 마당의 정독대에는 회원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삼해주들이 담겨 있다. 술은 익어 맛이 깊어지고, 회원들은 전통을 가슴에 담게 된다. 2 북촌 전통 공방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을 현대의 조화, 전통의 슬기롭고 합리적인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전통을 승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밤새 내린 눈으로 고요하기 그지없는 겨울,
여인들이 모인 규방은 밤이 깊도록 불이
밝다. 버선을 지어 선달 선물로 마련하고,
색동저고리 지어 다가올 정초를 준비한다.
남은 조각 천을 모아 보자기와 주머니를
짓는 규방의 겨울은 고된 노동의
시절이기도 하지만 여인들끼리 모여 묵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낸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해의 살림 밑천을
마련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맘때 규방
여인들에게 바느질이란, 한 해를 단단히
여미던 의식과 다름 아니다.



규방에서 한해를 여미다



겨울 규방

겨울이라는 낱말은 ‘계신다’는 뜻의 ‘겨슬’에서 왔다. 말 그대로 한철 내내 집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겨울 들머리인 입동부터 이듬해 입춘까지 석 달. 양력 11월~2월에 해당하는 상달(10월)과 동짓달(11월)과 선달(12월)이 절기상의 겨울이다. 그러나 바깥출입이 뜸해진다고 일손마저 뜸해지는 건 아니다. 겨우살이 챙기랴 봄 맞을 채비하랴, 오뉴월보다 더욱 분주했던 정중동(靜中動)의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인네들에겐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길쌈: 겨울밤의 베틀소리와 노랫소리

여인들에게 겨울은 무엇보다도 의복을 짓고 옷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해거름에 시작된 바느질과 물레질은 종종 삼경(三更)을 넘어 첫닭이 울 때까지 이어지곤 했다. 가족들의 정갈한 입성을 위한 이 같은 노고는 <농가월령가> 겨울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월은 초겨울이니 입동 소설 절기로다 / (...)우리 집 부녀들아 겨울 옷 지었느냐.” (10월)

“해 짧아 덧이 없고 밤 길기 지루하다 / (...)등잔불 긴긴 밤에 길쌈을 힘써 하소.” (11월)

겨울 규방(閨房)의 대표적 풍경인 길쌈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베, 모시, 명주 길쌈은 삼한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무명 길쌈은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뒤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엔 길쌈이 국가적으로 장려되었으며, 누에를 키우고 종자를 나누어 주는 잠실(蠶室)도 곳곳에 있었다. 오늘날 서울의 잠실이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길쌈은 고된 작업이었다. 조선시대 규방가사인 <여자탄식가(女子嘆息歌)>에는 “모시 낚기 삼베 낚기 명주 짜기 무명 짜기 / 다담 일어 베를 보니 직임방작 괴롭더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손꼽히는 권문세가였던 안동 권씨 문중에 시집 간 여성의 노래임을 감안하면, 길쌈은 여염집 아낙들뿐 아니라 사대부 집 마님들에게도 수월찮은 노동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인들에게 일을 떠맡길 수도 없



동지현말: 동짓날 버선 지어 바친 뜻은
 동짓날이 다가오면 며느리들의 손길이 유난히 바빠진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누이, 시고모 등의 버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옷가지를 일일이 못 짓는 형편이라도 버선만은 반드시 지어야 했는데, 이렇듯 동지에 시댁 여자들에게 버선을 지어 바치는 것

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쓴 <사소절(士小節)>에는 ‘실을 뽑고 솜을 타며 옷을 다리고 비단을 마전(생피륙을 삶아 별에 말리는 일)하는 일은 몸종이 있어도 부녀자가 손수 익혀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부녀자로서 길쌈과 음식 만들기를 못하는 건 장부로서 시서(詩書)와 육례(六禮)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게 그 시절의 통념이었던 것이다.

줄음과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여인들은 길쌈하는 내내 노래를 부르곤 했다. <물레 노래>나 <베틀가> 같은 조선시대 규방가사에는 노동의 고달픔은 물론이고 생활의 힘겨움과 사랑의 아픔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 겨울밤 문풍지 틈새로 흘러나오던 베틀 소리와 노랫소리는 옛 여인네들의 남모를 탄식이기도 했던 것이다.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세 옥난간에다 베틀을 놓세 / (...)반 공중에 걸린 저 달은 바디 장단에 다 넘어간다 / (...)이 베를 짜서 누구를 주나 바디칠 손 눈물이라도 / 닦아 닦아 우지를 마라 이 베짜기가 다 늦어간다 / 에헤 요 베 짜는 규수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베틀가> 중에서)



2

1 어린이들의 누비버선으로 아직 걸음을 걸지 못하는 아기에게 신기 기 위하여 수를 놓고 솜을 달아 예쁘게 꾸민 타래버선. 광복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규방 여인들의 필수품이었던 바늘은 소중한 도구이고 또 힘부로 굴릴 경우 무서운 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바늘보관용 도구에 넣어 두는 것이 예로부터 우리 풍속이었다. 침낭(針囊)이라고도 불리는 바늘집. 동합금 재질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3 김홍도의 풍속화 중 길쌈. 열심히 실을 뽑아내는 아낙네와 베틀에서 길쌈하는 아낙네, 그리고 아이를 업고 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잔솔미가 깃들여 있다.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을 일컬어 ‘동지현말(冬至獻襪)’이라고 한다.

<현종실록>에 보면 ‘대사간(大司諫)이 동지를 맞아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동지에 버선을 바치는 정성으로 글을 올렸다’(현종5년 11. 5)라는 대목이 나온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갓 출가한 며느리가 동짓날 시부모에게 버선을 지어 바치는 풍속이 언급되어 있다.

동지현말은 본래 송나라 풍습이었다. 동짓날엔 해가 극남(極南)으로 가서 그림자가 한 길 세 치나 길어지는데, 새 버선을 신고 이날부터 길어지는 그림자를 밟으며 걸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풍년과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주술적 풍습이라는 해석도 있다. 동지 이후 해가 길어지는 것을 양기(陽氣)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 버선에 발을 넣는 것을 성적(性的) 상징으로 여겨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아무려나, 동짓날이 다가온다는 건 이 땅의 며느리들에게 적게는 예닐곱 켤레에서 많게는 이십여 켤레의 버선을 받세

지어야 함을 의미했다.

겨울철에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디 그뿐이었을까.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을 하오리라”(농가월령가 10월), “여자들아 네 할 일이 메주 쏘 일 남았구나, (...)특별히 팔죽 쑤어 이웃과 즐기리라”(11월),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 장만 하오리라”(12월) 등등 안채와 부엌을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계절이었으니, 사내들보다 여인들이 봄을 더욱 반가워했던 건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규중 여인들이 짓고 불렀다는 <화전가(花煎歌)>의 한 대목처럼.

“입춘을 지냈으니 춘하절이 분명하다 / 반가울사 반가울사 춘풍삼월 반가울사 / 삼십육정 도시춘에 봄춘자가 더욱 좋다 / 하양하목 이귀춘에 꽃화자가 더욱 좋다 / (...)반가울사 반가울사 춘풍삼월 반가울사 / 백백홍홍 자진 곳에 만화방창 시절이라 / 놀고 보세 놀고 보세 화전하고 놀아 보세…….”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밥상보와 그릇보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덮어둘 수 있도록
고안된 밥상보와 혼수로 해운 그릇이 행
여 깨질까, 먼지 탈까 싸들 때 쓰던 그릇보
가 안주인의 정감한 손끝을 닮았다. 주발
보와 바리보는 주로 한 쌍으로 마련했는
데 남자의 그릇인 주발보는 청색, 여자의
그릇인 바리보는 홍색으로 구분했다.
상은 세컨드호텔 작품으로 KODF갤러리숍, 안혜경
작가의 밥상보는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숍, 그릇
보는 한복린.

규방의 보자기 싸개, 덮개, 깔개, 가리개

겨우내 규방에서는 바느질이 한창이다. 떨어져 나온 작은 옷감을 모아 새로 디자인
한 것이 보자기다. 싸개, 덮개, 깔개, 가리개로 무한 변화하던 보자기의 용도.





이불보와버선본보

철철이 이불을 바꿔 사용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불보는 필수품이었다. 이불보는 그 크기가 커서 가리개 용도로도 곧잘 쓰였다. 유난히 작은 보자기가 있으니, 바로 버선본을 싸두던 버선본보다. 버선을 지을 때마다 가족들의 발 치수를 재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만든 버선본을 잘 접어 수를 놓은 예쁜 보자기에 싸서 보관했다. 조각보와 버선본보는 미르, 운문단 매화 이불과 자수 베개는 담연.



간찰보와 함보, 기러기보

편지는 본디 은밀히 주고받는 것이다. 편지를 전달하거나 보관해두던 보자기가 간찰보다. 연서를 주고받다 보면 부부의 연을 맺기 마련. 혼례에 쓰이는 함보는 부정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로 붉은색으로 만들었으며, 사랑의 맹세를 상징하던 기러기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기러기보는 청홍색이 주를 이뤘다. 간찰보는 미르, 함보와 기러기보는 효재.





패들보와 책보

여인의 귀중품이 패들이었다면 선비의 귀중품은 서책이 아니었을까. 갖은 보석을 함께 담아 귀하게 싸두던 패들보는 화려한 것과 수수한 것 모두 저마다 주인의 성품을 닮았다. 책보 역시 다르지 않았다. 책가방 역할을 겸하며 책을 싸서 들고 다니던 책보 역시 주인의 취향에 따라 색과 소재가 제각기였다.

보자기는 효재, 밀화가락지, 호박가락지, 띠돈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7호 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책보는 담연.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촬영 장소** 락고재(02-742-3410)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814-0250), 담연(02-546-6464), 미르(02-733-6881),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숍(02-3210-0071), 정암아트갤러리(02-737-2333), 한복린(02-517-6830), KCDF갤러리숍(02-733-9041), 효재(02-720-5393)

선달 그믐날의 골동반, 혹은 부빔밥

음식을 남겨둔 채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여겼던 옛사람들은 선달 그믐날 저녁에 남은 음식들을 죄다 모아서 비벼 먹었다. 오늘날의 비빔밥에 해당하는 그 음식을 가리켜 '골동반(骨董飯)'이라고 한다.

골동반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조리법은 전혀 다르다. 명나라 때 문헌인 <골동십삼설(骨董十三說)>에는 '여러 음식을 혼합하여 조리한 국을 골동갱(骨董羹), 밥에 여러 재료들을 섞어서 익힌 것을 골동반(骨董飯)이라 부른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의 골동반은 여러 재료들을 미리 섞어서 함께 익힌 것이다. 제각기 따로 익힌 재료들을 비벼 먹는 우리네 비빔밥과는 출발부터가 판이하게 다른 음식이다.

골동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조선 헌종 15년(1849)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 발견되지만 자세한 조리법은 나와 있지 않다. 19세기 말의 요리책 <시의전서(是議全書)>엔 골동반 옆에 '부빔밥(비빔밥)'이라는 한글 표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조리법도 실려 있는데, 중국과의 차이가 한눈에도 확연하다.

"밥을 정히 짓고 고기는 재워 볶고 간납은 부쳐 썰다. 각색 나물을 볶아놓고 좋은 다시마로 튀각을 튀겨서 부숴놓는다. 밥에 모든 재료를 다 섞고 깨소금, 기름을 많이 넣어 비벼서 그릇에 담는다. 위에는 잡탕거리처럼 계란을 부쳐서 골매짜만큼씩 썰어 얹는다. 완자는 고기를 곱게 다져 잘 재워 구슬만큼씩 빚은 다음, 밀가루를 약간 문혀 계란을 씌워 부쳐 얹는다. 비빔밥 상에 장국은 잡탕국으로 해서 쓴다."

고추장을 사용한 건 20세기 이후지만 기본 조리법은 의연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식 골동반, 곧 비빔밥의 뿌리를 학자들은 제사 풍습에서 찾는다. 제를 올린 뒤 제사상의 음식들을 고루 섞어 먹던 것이 비빔밥의 원형이라는 것. 거기엔 심오한 우주의 섭리마저 깃들여 있었다. 노란 계란과 붉은 육회, 흰묵, 검은 김가루, 푸른 오이채를 곱명으로 얹어 오행(五行)의 조화를 꾀했다는 것이다.

비빔밥은 하나의 문화 상징이기도 하다. "재료에 따라 적절히 간을 맞춰가며 맛갈스레 비비는 '한국적 유연성' 이어말로 제 예술 활동의 원천"이라고 말한 것은 재미(在美) 작가 강익중이다. 백남준 역시 '한국문화는 포용과 조화가 돋보이는 비빔밥과 같다'고 했고, 시인 이승훈은 '비빔밥 시론(詩論)'을 통해 '섞임의 미학'을 주창한 적도 있다.

오늘날 김치, 불고기와 더불어 '코리아나 푸드'의 상징으로 꼽히는 비빔밥. 올 선달 그믐엔 이 멋들어진 음식과 더불어 푸짐한 세밀을 보내면 어떨까. 음식이면서 철학이었고 문화이자 미학이었던 민족의 음식, 골동반 혹은 부빔밥으로.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尊

雪花秀

맨 얼굴로도 하루 종일 윤이 나는 피부- 피니셔가 만드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설화수 미안피니셔

아침 저녁으로 정성 들여 관리하는 스킨케어, 그 효과는 왜 금방 사라질까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전체적인 효능을 극대화하는 미안피니셔- 녹차와 인삼의 조화로 완성된 녹삼호™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앞서 바른 성분들을 단단히 지켜주고 스킨케어 효과를 강력하게 끌어올려 줍니다 맨 얼굴로도 하루 종일 윤기 있게 빛나는 여자의 피부를 위해 이제 윤조에센스로 시작하고, 미안피니셔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미안피니셔

Sulwhasoo



김수영
아름다운, 꿈의 유목민

추상적인 꿈을 구체적인 삶의 실타래로 엮어가는 누군가의 모습만큼 경이로운 것이 있을까. 매일같이 스스로 세포분열하며 꿈을 진화시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희망의 보증서와 같다. 김수영은 그 자신이 말하듯, 오늘도 꿈의 유목민으로 산다.





그녀에게 학창 시절은 따뜻한 봄날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학교 시기까지, 그녀를 지겹게 따라다녔던 보충수식은 대개 '문제야' '자퇴생'과 같은 웅색하고 어두운 단어들이었다. 하루하루가 전투처럼 치열하게 반복되던 시기, 희망이나 행복 같은 단어들은 책장을 덮으면 사라지는 동화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듯했다.

누군가 결심하는 순간 삶이 변한다고 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그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삶을 바꾸고 싶어 공부에 몰입하자 잿빛 세상에 신기하게도 햇살이 내렸다. 행운도 덧붙었다. 성적이 오르면서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받을 구르던 참에, 다행히 <도전! 골든벨>에서 우승하면서 장학금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드림멘토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인생의 물줄기가 바뀐 시기는 세계적인 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초기였기에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청춘의 심장에는 깊은 생채기가 남았다. 모든 일상이 정지된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진정한 삶의 구슬을 찾으려 분주해졌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쏟아내며 해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진짜 인생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죠. 결론은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73가지 버킷리스트를 적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삶이 힘들었을 때 세상은 타인을 위한 불공평한 무대였는데 막상 가슴에 꿈을 품자 세상은 저를 위한 도전의 무대가 되었거든요.”

꿈은 진화했다. 과거 꿈의 리스트는 73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세포분열하는 것처럼 수가 붙어 지금은 83가지가 되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도전한 것만 무려 48가지에 이른다. 수와 종류만 따져봐도, 세계 인종의 그것처럼 꿈의 색깔은 각기 달랐다.

“뮤지컬 무대에 서기, 책 집필하기, 길리만자로에 등반하기, 남미에서 살사 배우기, 인도 영화에 출연하기 등 정말 다양한 일에 도전했고 성공했어요. 물론 수많은 도전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일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린 거였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던 아버지가 이제는 기적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꿈을 찾기 위한 도전은 2011년 6월부터 1년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25개국을 여행하며 365명의 삶과 희망을 담은 '꿈의 파노라마'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네 살배기 아이부터 여든일곱 노인까지, 왕족부터 거지까지, 그녀는 지독히도 다양한 사람들의 꿈을 인터뷰했다.

“대부분 꿈은 한 가지 방향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마라톤을 이어가듯 뛰어갑니다. 전 가능하면 다양한 꿈을 꾸시라, 얘기해요. 그것들을 이뤄가는 과정이 진정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거든요. 간단한 방법은 지금 당장 꿈을 입으로 말하는 대신 종이에 적는 겁니다. 그 순간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는 생각이 인생의 계약이 되니까요. 거기에 연도를 덧붙이면 계획이 되고 실천하면 원하던 현실이 됩니다.”

최근 출간한 <드림 레시피>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누구나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매일 건강증 환자처럼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요리처럼 자신의 인생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 원하는 음식이 있어도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추측만으로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누군가 내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인생이라는 요리는 단 한 번뿐인 시간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덧붙여 그 음식은 분명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더 맛있을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더 행복합니다.”

그녀가 강연에 나서면 항상 동네 주민과 인사하듯 친근하게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다.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에 대한 이야기다. 가령 꿈을 찾아 떠났다가 다치거나 홀로 남겨지거나 빈털터리가 되는 등 지독히 불행한 상황에 대한 가정들.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구의 절반은 여자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더 친밀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제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딱 한 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운전사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면서 시내를 뺑뺑 도는 거예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너희 집에 가서 살자. 단 내 집은 가져가야 하지 않냐면서 겨우 호텔로 방향을 돌려 신고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웃음)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녀가 내린 결론은 상식선에서 조심하면 아무리 외진 곳을 돌아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꿈을 미룬다는 말은 그 자체로 변명이자 회피일 뿐이란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삭제해야 할 것은 자신을 심리적 수면 아래로 끌어당기는 습관적인 혹은 막연한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꿈을 향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는 무엇일까? 다행히도, 충분히 소박하다. 우선 먼지가 수북한 점시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먼지가 내려앉도록 방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 제안한다. 묵은 때가 끼고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화장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짜증이 쌓여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부터 정리하고 나면 마음과 인생의 찌꺼기들을 정리할 준비가 끝난 상태, 그 다음부터는 꿈의 레시피를 작성하고 맛있게 조리하면 될 일이다. 앞에서 얘기한 불안과 망설임만 빼고서.

“도대체 무엇이 늦고 무엇이 나이가 많다는 것일까요. 꿈은 한번 굳어지면 수천 년간 변하지 않는 화석이 아니잖아요. 평생 내 심장과 함께 팔딱팔딱 뛰며 성장하는 삶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나이를 핑계로 이 모든 것을 멈춘다면 사람의 물리적 나이는 계속 늘어갈지 몰라도 삶의 나이는 멈추어버릴 거예요.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서야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나이가 몇 살이든 꿈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일 겁니다.”

지금의 선택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그녀는 우리에게 확인시킨다. 덧대어 말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과거에 했던 선택들의 결과이고, 미래의 현실은 지금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까지의 삶이 평범했든 특별했든, 우리가 앞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지금부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격려한다.

인생이란 긴 강줄기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산다. 나 자신을 습관처럼 잊어버리고 꿈은 아예 없었던 것마냥 생략하며, 무엇보다 지금이란 시간을 손사래치며 부정한다. 항상 타인을 바라보거나 신세타령을 하거나, 종종 먼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남긴 한마디는 시원하고 명쾌하다.

Stop, Thinking, Action to, Realize your, True dreams! 그리하여, START!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하림(엔필로에 02-517-9111) 메이크업 조원경(엔필로에 02-517-9111) 스타일리스트 박송이 도움 주신 곳 불빅스엠무어, 페르쉐(02-3442-3012) 제시 뉴욕(02-3442-0220) 클리치(02-548-3956) 제이티아라(02-508-6033)





파블로 피카소, 현대미술의 장을 연 창시자

말이 필요없는 위대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들이 그의 고향, 말라가로부터 도착했다. 피카소의 작품뿐 아니라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100여 점이나 전시되어 피카소의 예술 세계뿐 아니라 예술가로서 피카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 거장이 어떻게 영감을 얻고, 그림을 그렸는지, 창조의 산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시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1 1905~1971년 사이에 탄생한 200점 이상의 피카소 작품들을 4개의 섹션에 구성했다. 2,4 피카소는 그림뿐 아니라 도자기,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다. 3 피카소의 드로잉을 통해 그의 천부적 재능을 느낄 수 있다. 5 피카소 재단의 소장품 중 판화, 일러스트, 도자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새롭다.



피카소는 스페인 남단의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추억과 경험이 이후 그의 그림의 테마가 되었다고 한다. 바다, 해수욕장, 소(투우), 고대 신화 그리고 여자들이 그것이다. 피카소는 평생 그 소재를 다루면서 자신의 미술을 실현시켜 나간 이다. 모든 사람에게 고향과 유년시절은 그의 왕국이다. 한 사람의 모든 것은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

지금 그의 고향 말라가에는 피카소 재단이 있다. 그의 생각을 매입한 말라가 시(市)는 그곳에 피카소 재단을 만들고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 연구, 홍보하고 있다. 바로 그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이 지금 한국에 왔다. '피카소 고향으로부터의 방문-말라가의 피카소, 완전한 피카소'란 제목의 이번 전시에는 판화, 도자기, 삽화, 일러스트 그리고 헝가리 출신 스페인 사진작가인 후안 히에네스가 피카소 생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유화 작품은 빠져 있지만 드로잉, 판화, 삽화만으로도 피카소의 탁월한 재능을 만나는데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피카소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 흔히 피카소가 추상화가이며 대상을 심하게 왜곡, 변형시킨 괴상한 그림을 그린 이로 기억하지만 그는 결코 추상화가가 아니다. 추상화란 그려진 그림 안에 외부세계를 연상시켜주는 이미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피카소는 평생 특정 대상을 그렸다. 물론 그는 그 대상을 닮은꼴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변형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렸다. 당연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림에 대한 확고한 관념에 도전하면서 그렸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누구하고도 공유하기 어려운 작가만의 감성과 시각,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법(시각언어)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화가란 존재는 우리에게 사물과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점을 알려주는 이이며, 다르게 보기의 가능성과 모험을 실현하는 이다.

피카소는 최초로 1909년부터 1911년경까지의 그림들에서 구상 대 추상의 문제를 의식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 그는 더 이상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을 포기했다. 이미 그런 그림은 이전에 죄다 그려졌고 더 이상 잘 그리기도 힘들었다. 그는 그림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사물을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 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특정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린다고 할 때 그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를 질문했다. 그는 사물의 뒷면, 윗면, 그리고 측면을 동시에 한 화면에 집어넣었다. 지금까지 그림은 오로지 정면만을 다루어 왔다. 그는 그 정면성에 저항했다. 그러는 순간 사물은 여러 시점에서 보여진 장면을 종합한 그림이 되어버렸다. 괴이



1



2

1 피카소 재단에서 진행된 전시 포스터 등이 전시되어 있다. 2 후안 히에네스의 사진을 통해 피카소 말년의 일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피카소의 작품들은 그의 초기화풍부터 노년까지의 압도적이고 다양한 미술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4 피카소는 그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었던 연인 프랑수아즈와 자를린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는 본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느냐와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화면이 납작한 평면이라는 사실도 이해했다. 그래서 원근법을 지워버렸다. 평면에 어떻게 깊이 있는 공간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림은 오로지 평면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인식은 이후 세계미술사를 혁신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기존에 당연시되던 그림들과는 다른 그림들이 모색되었고 특정 방식으로 보기를 강제하던 시각 문화의 전통은 붕괴되었다. 이제 작가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시각으로 미술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미술이다.

이번 전시에는 그와 연인관계를 맺었던 여인들의 얼굴 그림이 눈길을 끌었다. 그에게 여자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부추기는 뮤즈들이었다. 간결하고 매혹적이며 힘 있는 선으로 그려 나간 여인의 얼굴 그림을 보면 얼마나 탁월한 소묘인지 알 수 있다. 화가란 존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저렇게 한 줄의 선으로 가시화해내고 축약해내는 이들이다. 여자들은 정면으로 혹은 측면으로 우수 어린 시선을 던진다. 나는 그 눈에 눈을 맞춘다. 피카소는 저 여자들의 얼굴, 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에게 여자의 얼굴, 눈은 무엇이이었을까?

또한 피카소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지적인 교류를 그치지 않았다. 독서와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고자 했다. 그 결과물들은 그가 즐겨 읽고 감동했던 책자의 삽화를 통해 드러난다. 발자크의 <미지의 걸작>, <공고라의 시>, <세제르의 시>,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 삽입한 그의 삽화는 품격 있는 드로잉이자 그 자체로 매력적인 회화다. 이러한 것은 단지 책의 삽화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출판미술의 성격을 지닌다. 책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이나 작품이 되어 전시장을 벗어나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수많은 독자와 소통한다. 그는 도기의 표면에도 많은 그림을 그렸다. 납작한 표면이 아니라 굴곡이 있고 연속되는 독특한 공간, 평면이 아닌 입체에 그림을 그린다는 체험은 특별하다. 그의 입체파 화풍 과도 연관되는 대목이다.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카소의 작업실, 집의 풍경과 그가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도 흥미롭다. 한 거장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며 그 창조의 산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일상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들이다.

피카소는 오래 살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작품을, 엄청난 작품을 남겼다. 전통적인 미술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고유성을 정의 내리는 일에 매진했으며 그림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사회와 기존의 제도화된 문화 등에 대한 비판을 감행했고 순응적 가치관을 뒤엎었다. 무정부주의의 자유로운 정신에 공감해온 피카소는 평생 그 정신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예술을 태동시켰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고향 말라가가 있었다는 사실, 그를 길러낸 고향에서 온 그림들을 보면서 새삼 피카소란 존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위대한 예술가란 이처럼 조국, 고향, 신화와 전설, 뿌리 깊고 유장한 전통을 토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은숙



3



4



雪花秀

다시 깨어나는 피부 본연의 힘 설화수 자음생크림

자음생을 경험한 분들이 계속 자음생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삼뿌리부터 진생베리까지 인삼에 담겨 있는 모든 생명력을 손실 없이
피부 속에 전달하여, 피부 스스로 살아나는 힘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으로
당신 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십시오.

Sulwhasoo



雪花文化展

문헌에서나 볼 수 있는 옛것이 있는 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하며
지금까지도 역할을 하는 전통이 있다.
그중 하나가 활이다. 2013 설화문화전
〈활力, 시대를 관통하다〉展에서는
사냥의 도구에서 전투의 무기로 이제는
심신을 단련하는 수양의 벗으로서
팽팽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활 문화가 가진
아름다운 변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활力 시대를 관통하다
The Power of Arrows across Eras



화살 arrow

유영기, 유세현

Youngki Yoo, Sehyun Yoo

궁시장 유영기와 유세현은 부자지간이다. 그들이 만드는 화살은 화살 만드는 대나무인 시누대로 만든다. 대를 고르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데 100개가 넘는 대나무 다발에서 무게와 부피, 생김을 살펴 성격이 맞는 대를 찾아내야 하는 작업이다. 하나의 화살이 완성되기까지 130번 손을 탈 정도로 예민한 노작(勞作)이다.

궁시장 유영기·유세현 <전통화살> 2010~2013 88~92cm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하지훈

Jihoon Ha

가구 디자이너 하지훈은 각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속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움을 흔들의자라는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했다. 의자 다리에 곡선의 굴대를 붙여 앞뒤로 흔들거리도록 만들었고 흔들의자의 굴대에 성질이 약간씩 다른 자연 재료를 결합해 만드는 복합 궁의 구조를 적용해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다.

하지훈 (Bow Chair) 2013 스테인리스 스틸, 벨트 66×121×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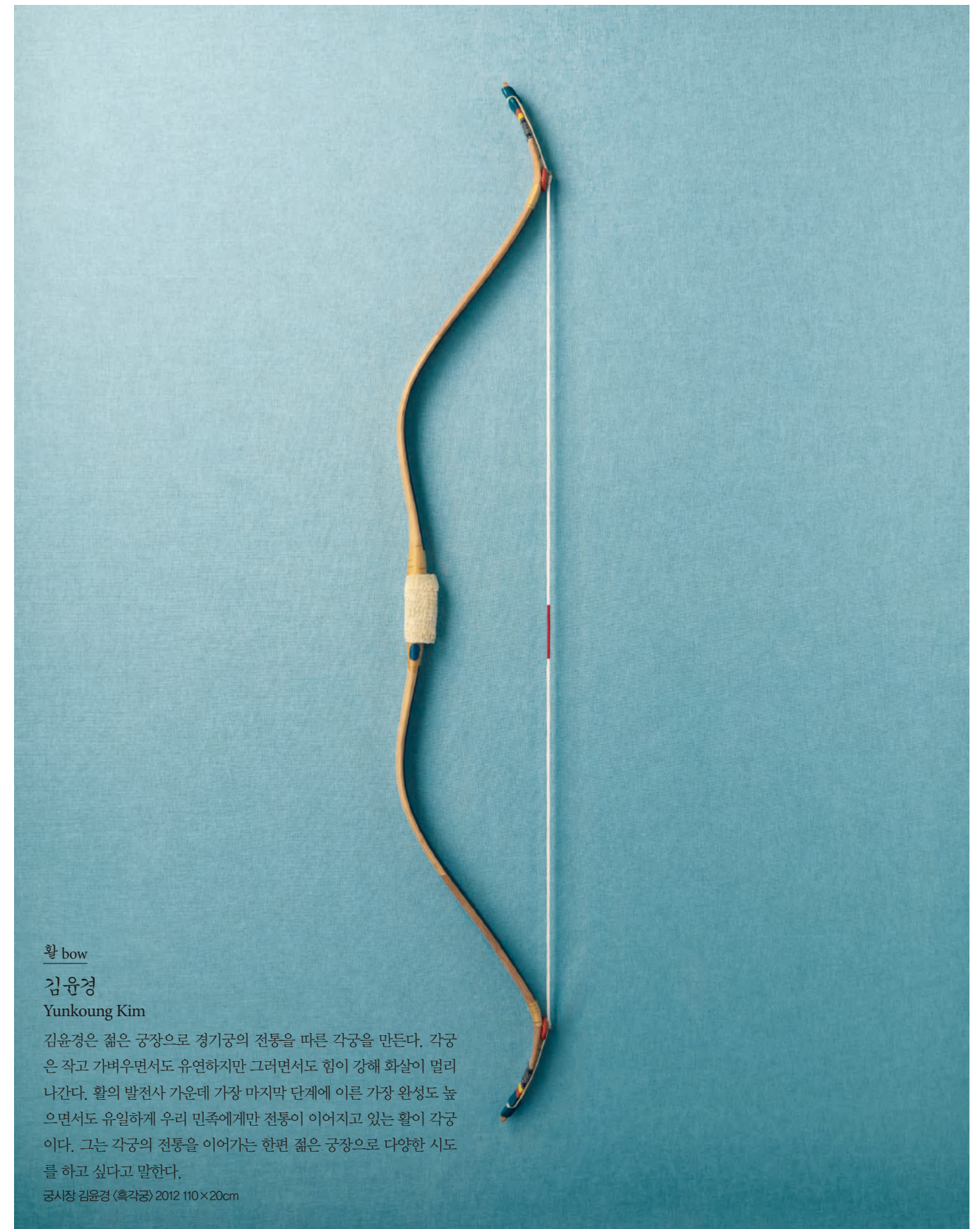
활 bow

김윤경

Yunkoung Kim

김윤경은 젊은 궁장으로 경기궁의 전통을 따른 각궁을 만든다. 각궁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유연하지만 그러면서도 힘이 강해 화살이 멀리 나간다. 활의 발전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른 가장 완성도 높으면서도 유일하게 우리 민족에게만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활이 각궁이다. 그는 각궁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젊은 궁장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궁사장 김윤경 <흑각궁> 2012 110×20cm





화살통 quiver

김동학

Donghak Kim

가장 대표적인 화살통은 '죽'전통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소재에 따라 다양한 전통을 만들어 사용했다. 전통장 김동학은 '어피'전통을 선보였다. 어피전통은 백골에 투각상어의 껍질을 붙인 화살통으로 따뜻한 물에 불려 거친 질감을 뺀 뒤 그늘에 말려 백골에 인두로 지저 붙인다.

전통장 김동학 <대모전통> 2012 89×5cm

<어피전통> 2012 85×5cm



건축 architecture

나은중, 유소래-네임리스 건축

Eunjoong Na, Sorae Yu-NAMELESS architecture

네임리스 건축은 활을 접한 후 직관적으로 텐션(tension)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두 개의 파이프가 구부러지면서 발생하는 압축력과 파이프를 연결하는 선재의 인장력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완벽한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만 가능한 삼각뿔 형태의 입체적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활과 활이라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Bow-Bow'를 탄생시켰다.

네임리스 건축 <Bow-Bow> 2013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와이어, PE모노사방, 가죽 340×400×340cm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구멍준

Byungjun Koo

화살에 여러 종류가 있고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감상적인 측면에서 큐피드의 화살은 사랑하는 이의 심장에 꽂혀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상징성을 가지는데 구병준은 이 긍정적인 관통에 초점을 맞췄다. 각기 다른 크기의 접시 15개를 쌓은 후 접시 테두리 가까이에 구멍을 뚫고 화살을 사선으로 꽂아 화살이 접시 전체를 관통하도록 디자인했다.

구병준 (Still Life) 2013 구리, 깃털, 가변크기





조각 sculpture

박천욱

Cheonwook Park

작품의 중심이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오브제는 '말(horse)'이다. 아이들이 타고 노는 장난감 말 8개를 잘라 상하좌우 대칭이 되도록 붙여 새로운 몸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칼과 펜, 옷걸이, 빗, 빗자루, 삼, 젓가락 등 다양한 오브제를 쫓았다. 그는 특별히 관련 있을 것 같지 않은 오브제들을 한데 붙여 오브제와 오브제끼리 조화 또는 화해가 일어나도록 했다.

박천욱 (Idle Direction) 2013 혼합재료 170×160×160cm



활 bow

권무석

Museok Kwon

지난 300여 년간 예천에서 안동 권씨 일가를 중심으로 활 만드는 전통이 이어져 왔는데 궁장 권무석은 이 예천궁의 전통을 잇는 가업을 물려받았다. 예부터 예천궁과 경기궁이 유명했는데 궁장 권무석의 각궁은 이 둘의 합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활은 활을 쓰는 사람에 맞게 만든다'는 원칙으로 활량에 맞춤형 각궁을 만든다.

궁장 권무석 (흑각궁) 2012 120×120×40cm



사진 photograph

大元

Dayuan

그는 활과 화살의 발전사 그리고 인류의 현재 상태를 되짚어보며 생명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카메라 앞에 선 무용가가 표현하는 형제미와 자연의 결합을 통해 활과 화살이 가진 형식미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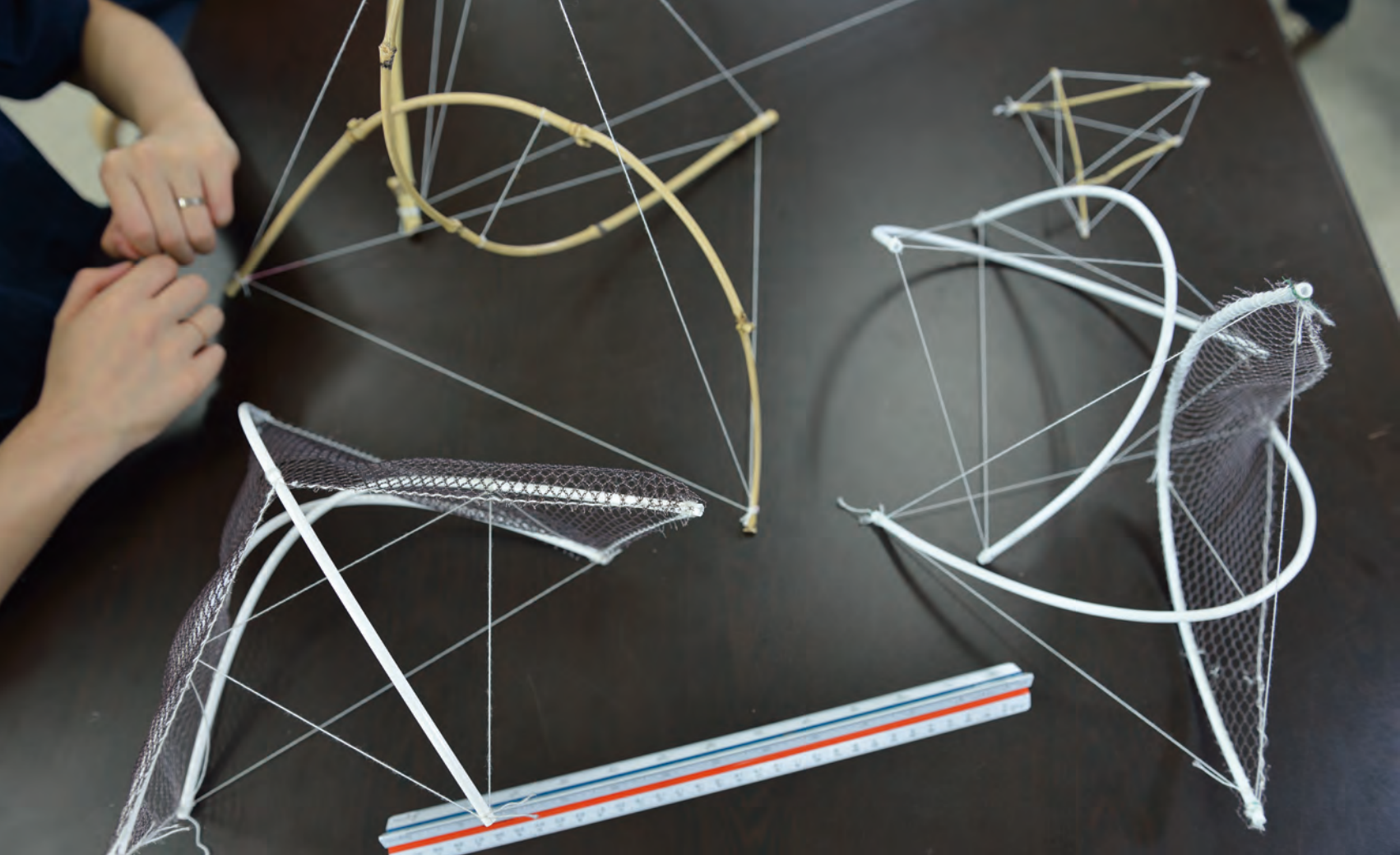
大元 (地) 2013



11인의 예술가, 활자의 변주를 만드다

활을 매개체로 <설화문화전>에 참여한 11인의 작가를 소개했다. 전통 활과 화살, 화살통을 만드는 공예 분야의 무형문화재와 전수 조교 그리고 조각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건축가 등 장르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은 '활'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활력이 주는 가치와 감동을 새로이 조명했다.





김윤경



네임리스 건축



유영기 · 유세현



하지훈

김윤경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 조교

김윤경은 전통 활 각공을 만든다. 그의 아버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기능보유자故김박영 아버지께서 하시던 것을 보고 자랐지만 특별히 마음에 두진 않았다. 손발 짝을 맞추어 활을 만들던 아버지의 제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면서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다. 스스로도 참 신기했다.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은 없었던 일인데 손에 익었다. 활 만드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한 것보다 해야 할 하고 싶은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우리 전통 활을 현재진행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네임리스 건축 · 나은증, 유소래 건축가

곧이곧대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네임리스 건축의 두 건축가 나은증과 유소래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더 큰 호기심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동시대성에 관심을 쏟는다. 그들에게 건축은 구조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건축은 결과나 완성이 아닌 세상과 관계 맺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말하는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술과 교감하고,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문화 활동을 유희한다.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맺은 자신들의 생각과 새로운 욕망을 건축을 통해 이야기하는 이상하리만큼 재미있는 팀합자들.

유영기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유세현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 조교

궁시장 유영기는 황해북도 정단 사람이다. 장단은 예부터 화살 좋기로 유명한 고을이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오늘날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고향 땅이지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익힌 장단 화살의 전통은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다시 손자가 하는 그 전통은 물의 흐름과도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기에 이제 화살 만들어서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화살 만드는 가업을 이어간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기에 더더욱 화살의 전통을 연구하고,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다채로웠던 우리 활쓰기 문화를 더 이상 반쪽짜리로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 유세현의 생각. 역시 피는 속일 수가 없다.

하지훈 · 가구디자이너

하지훈은 결을 따른다. 재료, 형태, 공간은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두 저마다의 결이 있기 마련. 그는 그 결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련된 디자인이 나온다고 했다. 그의 디자인은 근본이 무엇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더하기보다 빼는 데에 집중한다. 핵심만이 명료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 그럼에도 그가 디자인한 가구에서는 북유럽의 심플하고 모던한 감각과 선한 한국적 정서가 한데 어우러져 묘한 파장을 일으킨다. 동시대의 아름다운 결과 디자이너 하지훈의 결이 교감을 나누고 우리가 그 교감에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 그 가운데에 놓인 하지훈의 디자인은 참 고운 결을 지니고 있다.



김동학



박천옥



권무석



구병준



대원

김동학 · 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

군더더기 없는 손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남긴 손 주름이 묘한 인상을 풍긴다. 분명 지긋한 어른의 손인데 다부진 기운이 넘친다. 그의 손에서 반백 년이 넘도록 화살통을 만들어 온 장인의 삶을 읽는다. 전통장 김동학. 스물 언저리의 청년이 백발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세상은 무수히 변하였지만 그는 한결 같다. 인생은 60부터라 했던가. 지난 60년, 화살통을 만들어 온 장인의 인생은 여전히 푸른 청춘기를 보내고 있다.

박천옥 · 조각가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불안해하며 끝없이 상상한다. 그리고 마치 진실인 양 믿어버린다. 박천옥은 그러한 상상과 믿음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죽기 전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박천옥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가끔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들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신의 존재와 삶마저 의문투성이가 된다. 박천옥은 조각을 통해 답을 찾아간다. 그에게 조각은 자신이 보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진짜'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본, 그가 믿는 진짜를 보여준다.

권무석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3호 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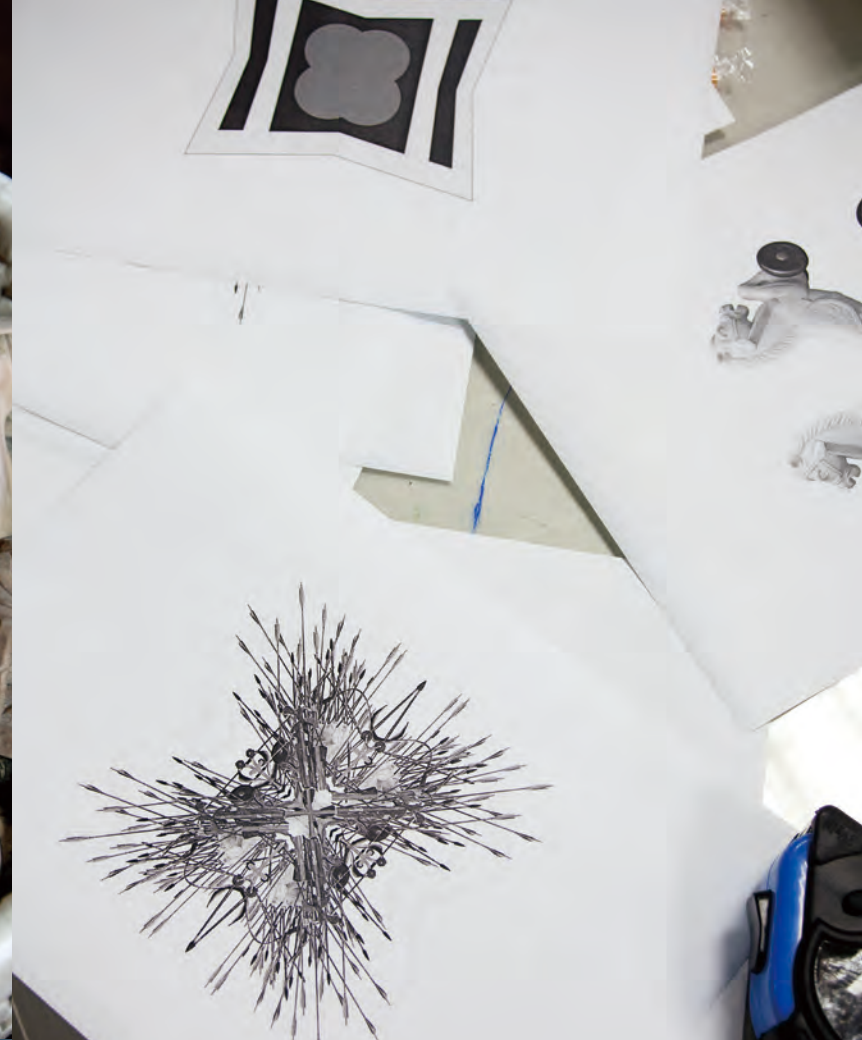
권무석은 경북 예천에서 11대조 권계항 이래 대대로 활을 만들어 온 안동 권씨 추밀공파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나, 그의 청년기는 활과 거리가 먼 삶이었다. 한데 "활은 내 대에서 끝이다"라는, 활을 만들어 기업을 이어가던 형님의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가 서른일곱.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다소 늦은 나이에 그는 활을 잡았다. 그리고 고회를 넘어선 오늘까지 여전히 전통의 활, 각궁을 만들고 있는 사람. 그는 우리 시대의 든든한 원로다.

구병준 · 제품디자이너

구병준은 명료하게 말했다. 유행 따라 반짝이보다 오랜 후에도 가치가 느껴지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계속 간직하고 싶은, 정말이지 평생 물건을 디자인하고 싶다고 했다. 값비싸거나 누군가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다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의 디자인으로 누군가의 기분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OK.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디자인, 그것이 바로 구병준이 지향하는 디자이너로서의 태도다.

대원 ·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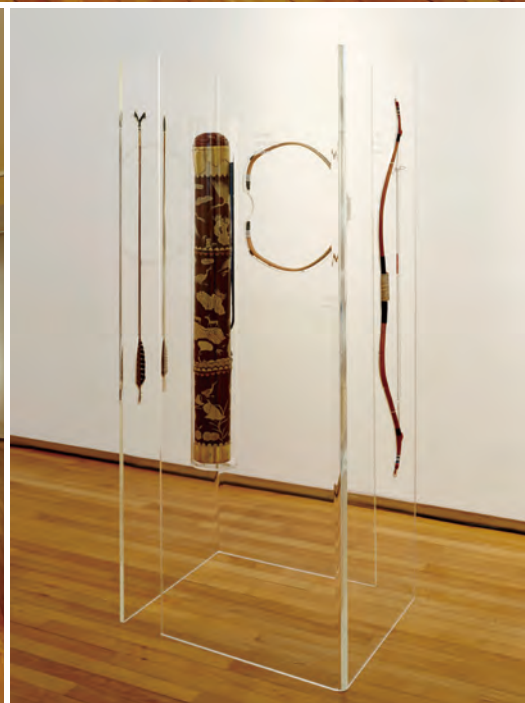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대원은 본래 미술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기념사진 기법을 이용해 창작 활동을 하던 스승의 영향으로 사진 공부를 시작했고 점점 촬영에 빠져들게 되었다. 직업적으로 그는 각종 제품, 공간, 잡지 촬영 등 주로 상업 사진을 찍는다. 한편 예술 단체에서 다른 예술가들과 가까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활동은 아니다. 매일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작업실을 오가는 평범한 교류가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한다 했다. 때문인지 그의 렌즈에는 호기심 강한 어린이의 시선과 예리한 예술가의 감각이 소리 없이 교차한다.





2013 설화문화전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展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설화문화전'은 '활'을 주제로 한국 전통 활과 화살, 화살통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는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인에서 '2013 설화문화전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설화문화전'은 전통 공예를 주제로 그 본래의 가치를 되짚고 현대미술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시로 전통을 고집스럽게 이어온 장인들의 땀과 혼, 기술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전통 공예와 현대미술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화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전통의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는 문화 메세나를 통해 전통장인과 현대작가들의 작업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2003년 40여명의 문화 예술인사와 함께 '설화문화클럽'을 조직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2006년부터는 '설화문화의 밤' 문화행사를 열어 수익금을 비영리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등 한국문화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설화문화의 밤'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 영향력과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09년부터 '설화문화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적인 활을 주제로 활과 화살, 화살통의 독특한 특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한국의 선과 아름다움, 전통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장르의 현대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활이 가진 의미와 관점을 새롭게 다양한 시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통 및 현대 작가들의 뛰어난 기술과 장인 정신, 열정의 시간들을 녹여낸 이번 전시에는 궁장 권무석, 궁시장 김윤경, 궁시장 유영기, 궁시장 전수조교 유세현, 전통장 김동학 등 5인의 전통 장인과 현대작가 하지훈, 구병준, 박천욱, 네임리스 건축, 大元의 6인 총 10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설화문화전에서는 중국 사진작가인 大元이 참여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국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활과 화살을 모티브로 제작한 아트 상품인 '2013년 설화문화전 디퓨저 스페셜 에디션'과 작가와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도 준비되어 전시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설화문화전 소식은 설화수 브랜드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whasoo.kr)과 설화문화전 공식 트위터(www.twitter.com/SulwhaCulture)에서도 볼 수 있다. S

에디터 신정희



1 올해 7번째를 맞는 '설화문화전'이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에서 열렸다. 2 이번 전시에서는 직접 국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설화(雪花)가 달리었구나

조용히 찾아온 탓에 첫눈을 반길 새도 없었건만 나뭇가지에 설화가 달리었다.
무심히 비추는 아침별에 이내 사라질 줄 알았건만 더 반짝이는 것을 보니
깊은 겨울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구나, 설화.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눈 내린 새벽에

-김시습(金時習)

滿庭雪色白皚皚(만정설색백개개)
瓊樹銀花次第開(경수은화차제개)
向曉推窓頻著眼(향효추창빈저안)
千峰秀處玉崔嵬(천봉수처옥최외)

뜰에 가득한 눈빛은 희고 아름다워라.
옥나무 은빛 눈꽃이 차례로 피어나는구나.
새벽 되어 창문 열고 자주 눈을 돌리니.
일천 봉우리 빼어난 곳에 옥이 높게도 쌓였구나.

부족해지는 피부 생기, 탄력과 주름 고민, 탁해지는 안색, 건조하고 영양이 부족한 느낌 등 찬바람이 불고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노화를 부르는 다양한 요인을 전반적으로 관리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설에센스는 눈꽃이 피는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귀한 적응 성분을 함유한 고품격 에센스이다.



첫눈

-이언적(李彦迪)

新雪今朝忽滿地(신설금조홀만지)
恍然坐我水精宮(황연좌이수정궁)
柴門誰作剡溪訪(시문수자섬계방)
獨對前山歲暮松(독대전산세모송)

첫눈이 오늘 아침 홀연히 온 세상을 덮으니,
황홀함이 내가 수정궁에 앉아 있는 듯하네.
사립문 열고 누가 섬계로 방문 갔으려나,
홀로 앞산의 동지선달 소나무를 마주하네.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건조함으로 피부가 자극 받기 쉬운 날씨에는 피부 본연의 건강한 리듬을 찾아주기 위한 세심한 토털케어가 필요하다.

진설크림은 부드럽고 도톰하게 발리는 고급스러운 제형으로 겨울철 균형을 잃기 쉬운 피부에 편안한 활력을 부여한다. 특히 소나무 오일을 더해 진진하게 느껴지는 솔내음은 스킨케어 시간을 더욱 귀하게 해준다.





국악의 내일을 열어 나가다

한민족이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K-POP 열풍이나 해마다 개최되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물론 그 능함의 원천은 당연히 국악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악은 외면당하는 ‘우리 것’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국악원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난 것은 그 이유를 묻고 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 과연 우리 국악의 오늘은 어떤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정서적 거리감
© 사진: 김지민

1

1 국악을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 문화의 한 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동복 국립국악원장.
2,3 국립국악원은 30년 넘게 상설 공연 '토요 명품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 대표적 전통 예술 상설 무대를 통해 우리는 국악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에 펼쳐진 공연으로 '피리 산조'와 '여민락'의 한 장면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통음악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다.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그리고 아리랑까지, 세계인이 보존하고 기려야 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으니 말이다. 한 왕조가 남긴 음악(종묘제례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전례는 없다. 여기에 판소리와 아리랑처럼 민중의 음악 유산까지 더불어 인정된 것이니, 한민족 전 계층의 음악이 세계의 공인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귀중한 유산에 등을 돌리고 앉아 귀를 닫고 있다. 그러한 외면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그 공통분모를 추려보면, '고리타분함'과 '정서적 거리감'으로 요약된다.

과연 그럴까?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보자. 유럽의 3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나 대중적 오페라 축제로 널리 알려진 베로나 페스티벌 등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의 벽을 뛰어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국악을 고리타분하게 느끼게 만든 건 국악이 가진 '원죄'가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한 후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외면의 이유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뤘지만, 그보다 빠른 속도로 전통을 저버린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서적 단절 역시 국악의 한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국악의 운명은 비극적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전통음악을 국가가 관리하는 '독보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 역시 우리뿐이라는 사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든다. 전국에 포진해 있는 '국악원 순례'를 떠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가장 먼저 찾았던 진도의 '남도 국악원'은 우리 소리는 큰 울림의 진원지에서 그 위대성과 생명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촌로의 입에서 마치 대중가요처럼 흘러나오던 육자배기와 진도아리랑을 들었을 때, 그 속에 담긴 회한과 해학의 절정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일상이 가사가 되고, 한숨으로 가락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삶을 고향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3대 악성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박연의 고향, 충북 영동에 위치한 '난계(蘭溪) 국악원'은 20여 년 전통의 '군립 국악원'이 가진 저력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세종대왕의 신임을 얻어 종묘제례악의 뿌리를 내리게 만든 난계의 후예들은 전통의 보존과 더불어 다양한 실험과 변주로 고인 물을 펴내고 있다.

다음 순례지로 4개 국악원 가운데 가장 늦게 개원한 '부산 국악원'을 찾은 건 한류의 원형인 조선통신사 취타대가 일본을 향했던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 소리의 세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싶어서였다. 부산 국악원은 영남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다양한 '시도'와 '모색'을 통해 제한적인 지역성에 얽매이지 않고, 외국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한 대도시라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음 방문지인 남원의 민속국악원을 들르기 전에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을 찾은 건, 모세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도립 국악단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탐구심과 의욕으로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단원들의 뜨거움을 보았다. 그것은 백성에게 우리만의 소리를 들려주고자 했던 선조들의 '여민락(與民樂) 정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지난가을 찾았던 남원의 '민속국악원'은 판소리의 성지에 세워진 기념비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판소리와 창극을 특성화해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지난 한 해 동안 찾은 국악원과 국악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고리타분함'과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버거운 상대와 고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 국악을 국가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긴 '국악원 순례'의 여정을 마치 고자 한다. 올해로 개원 62주년을 맞이한 국립국악원은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악 부흥에 매진해 왔다.



2
3



“연희와 풍류사랑방 문화를 복원해 마련한 신규 공연장 ‘연희 풍류극장’ 건립과 ‘아리랑’과 관련된 브랜드 공연 및 전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밖에도 소속 연주 단체의 근무 환경 개선과 기량 향상에도 힘을 기울였죠. 또한 문화 소외지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연 활동을 벌이며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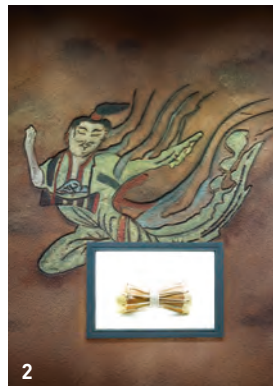
올 한 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한 이동복 국립국악원장에게 국악이 국제적 문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일반 외국인 및 주한 외교 사절, 한국어학당 등의 단체 체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민족 음악학자들을 초대해 ‘국제 국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해외로의 전파를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국악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해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 세계 각지로 직접 찾아가 우수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K-POP에 이은 K-Culture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보존과 전승’,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창조’라는 두 가지 사명을 띠고 있다. 첫 번째 ‘국악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사명을 위해 올바른 전통예술의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각 연주단이 전 바탕 연주를 중심으로 한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올바른 소리와 춤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고증을 통한 표준 악기 제작과 악보 기록 등의 꾸준한 연구 사업으로 올바른 전통의 기준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 과제인 ‘국악의 창조’ 역시 미래의 전통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명에 속한다. 따라서 국립국악원에서는 창작 국악 활성화를 위해 ‘창작 악단 연주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국악의 미래를 이어갈 어린이들의 ‘국악 동요제’와 ‘국악 동요부르기 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함께 창작 국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지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소리, 나라의 음악인 ‘국악(國樂)’은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각자의 특성을 살린 4대 국악원과 싹틔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다수의 국악단에 의해 ‘옛것’이 아닌 ‘지금의 것’, ‘박제된 소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날것’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니 국악이 ‘고리타분함’과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버리기 위해선 공연장으로 향하는 관객들의 ‘흥겨운 결심’만이 남아 있다. S

글 최태원 사진 왕태균

국립국악원

‘국악 공연기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국립국악원은 1960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국악의 심장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국악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모색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벨소리, 지하철 환승역 알림 음악, 인천공항 및 KTX 역사 내 방송, 영화 및 방송 배경음악 제공, 태권도 등의 스포츠와 접목 시킨 국악 음원 보급 등의 국악 대중화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



3

1 국악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계층의 음악이었다. 조선의 선비는 거문고와 그림과 시를 통해 하나의 '문화'를 완성하고자 했다. 2 국립국악원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국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진은 '원류 음악실'의 일부. 3 국립국악원을 소개해 준 국립국악원 장악과의 서정호 주무관.

〈국악기행〉에 소개된 동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QR코드를 찍거나 설화수 홈페이지의 설화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11/12월호 〈국악기행〉에 소개된 국립국악원의 '수채찬', '야행산조' 등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에 담긴 고유의 정서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세요.

10가지 찻자리 이야기 균형과 형평의 원리

차 한 잔에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과 형평의 법칙이 담겨 있다.



차의 정신을 말하다, 중(中)과 정(正)

좋은 차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차, 물, 불로 차를 우려내는 사람에 따라 차의 맛은 수시로 변화한다. 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의 모든 것 역시 머무르지 않고 늘 흐른다. 삶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에게 차가 선사하는 정신적인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좋은 차는 참된 향(진향), 참된 맛(진미), 참된 빛깔(진색)로 평가된다. 중국의 장원은 <다록>에서 '차는 맑고 푸른 것이 가장 좋고, 찻잔의 물은 여린 쪽빛에 하얀빛이 도는 것이 좋다. 누런색, 검은색, 붉은색, 갈색 등은 좋지 않다. 밝은 물빛이 좋고, 푸른색은 보통이며, 누런색은 좋지 않다'고 평했다.

차의 맛 역시 최고의 찻맛으로는 '달고 부드러운 것'을 친다. 여기에서 달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법제를 통해 차를 마신 뒤 끝에 목구멍과 혀를 감고 타고 올라오는 단맛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명품 차를 만드는 것은 장인이 예술작품을 만들 듯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공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은 너무 넘쳐서도 부족해서도 안 된다.

<만보전서>에서 '차는 스스로 참된 향, 참된 맛, 참된 빛깔을 지니는데 한 번만 다른 물질에 물들어도 그 참됨을 잃는다'고 했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정도에 맞게 불을 조절하고, 물의 온도를 살피고, 정갈하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 하나라도 소홀하면 가치를 잃을 수 있다. 차 한 잔에 담긴 수시처중(隨時處中)의 법칙, 균형과 형평의 원리는 이렇듯 찻자리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크리스마스를 맞아 출시된 오설록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오설록 마스크트인 오색 딱따구리가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패키지에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 오색딱따구리는 제주도의 상징물이자 가족애가 강한 희귀새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출시된 오설록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녹차의 담백함에 제주 영굴의 상큼한 맛을 더한 삼다연 제주 영굴과 봄꽃이 만발한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제주 아일랜드 드림 잎차로 구성되어 있다. 신비로운 동화 같은 제주 섬에서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더욱 특별한 가치를 전할 뿐 아니라 연말을 맞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용으로도 알맞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KCDF갤러리숍(02-733-9041) 참고 문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차>(여연스님, 현암사)



오설록 크리스마스 에디션 오색 딱따구리가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모티브로 한 오설록 크리스마스 에디션 제주 영굴의 향긋한 향이 돋보이는 삼다연 제주 영굴과 봄꽃이 만발한 제주도로 여행 가는 설렘을 안겨주는 제주 아일랜드 드림 잎차로 구성되어 있다.



겨울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에는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겨울철 눈보라 속에 서 있는 나무의 껍질을 보면 바짝 말라 짝짝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물며 추운 날씨를 견디는 견고한 나무의 외피조차 그러한데 겨울철 가뜩이나 연약한 피부는 더욱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마련이다. 쌀쌀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나날이 푸석푸석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피부. 겨울 앞에 서면 20대 한여름 같던 창창한 윤기를 잃어버리고 겨울철 혹은 한으로 돌아선 피부 앞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다른 어느 피부 트러블보다 심각한 고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피부 보습력이 떨어지면 흔히 '버짐 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각질들이 하얗게 일어나고, 화장으로도 커버하기가 힘들어진다. 또 수분 부족은 주름을 만드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건조한 날씨에 시달리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보습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때다. 잔뜩 시든 꽃에 물을 주면 생기를 얻듯, 우리 피부 역시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면 촉촉하게 되살아나 자연스러운 윤기가 흐르게 된다.

겨울철 매서운 바람은 우리 선조들 역시 아름다운 피부의 적으로 생각했다. <규합총서>에 따르면 옛 여인들은 면지방(面脂法)으로 윤기 있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 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새지 않도록 두껍게 봉하여 4~7일 쬐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뿐더러 윤지고 옥 같아진다. 얼굴과 손이 터서 피가 나거든 돼지발기름(豚油)에 괴화(槐花)를 섞어 바르면 낫는다.'

<규합총서>의 면지방을 보면 지금도 놀랄 만한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지는데 달걀은 얼굴의 주름이나 영양을 주는 얼굴 팩의 주재료이고 술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소독해 주고 흡수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돼지발에는 피부를 활성화하는 콜라겐이 많고 회화나무의 꽃가루에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 피부를 가꿔주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어 오늘날 영양크림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면지방으로 겨울철 매서운 바람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피부 속부터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이 해답이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대준 도움 주신 곳 우일요(02-763-2562) 참고 문헌 <한국인의 미용풍속>(이연복, 이경복, 월간 에세이)

자음생크림은 인삼 결정체가 피부를 케어해주는 한방 고농축 인삼크림이다. 풍부한 영양 성분이 피부를 안팎으로 케어해준다.



맨 얼굴로도 당당한 아름다움

나이가 들수록 맨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다. 가뜩이나 생기를 잃은 얼굴에 가벼운 화장이라도 해 주어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맨 얼굴로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으려면 피부의 바탕부터 가꿔야 한다. 귀한 한방 성분을 담은 설화수 제품과 심신을 조화롭게 해주는 정성스러운 손길인 더해진 설화수 스파에서는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양집중 프로그램은 설화수의 대표 제품인 자음생크림과 옥반지를 이용해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고운 피부 결로 회복시켜준다.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연극·뮤지컬|

뉴욕을 배경으로 한 러브 스토리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은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로잡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 신정희**



남녀노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스토리와 경쾌한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이 1929년 뉴욕을 배경으로 가장 멋지고 매력 있는 아가씨와 건달들의 사랑과 승부, 인생의 짜릿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검증된 실력과 인기로 주목받는 뮤지컬 배우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뉴욕 최고의 승부사 '스카이' 역에는 브라운관을 통해 궁정남으로 인기를 한몸에 얻고 있는 류수영과 독보적인 뮤지컬 스타 김다현, 라이징 스타 송원근이 캐스팅되었다. 반전 매력의 선교사 '사라'역은 드라마와 뮤지컬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지우와 이하늬가 열연한다. 또 도박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 '네이슨' 역은 개성 강한 캐릭터와 연기로 우뚝 선 중년 배우 박준규가 출연한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은 1960년 첫선을 보인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네 명의 청춘 남녀가 사랑과 명예, 꿈을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 이야기가 화려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져 즐거움을 더해준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순애보적인 사랑과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랑이 만든 짜릿함, 그리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진짜 남자들의 이야기가 위트 있는 대사 와 노래로 실재 없이 펼쳐진다.

일시 1월 5일까지 **장소** BBC씨어터 **문의** 1588-0688 **관람료** VIP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뮤지컬 <맨 오브 리만차>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맨 오브 리만차>는 완성도 높은 드라마와 가슴을 울리는 음악으로 극찬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계의 투 톱 정성화와 조승우를 내세운다. **일시** 11월 19일~2014년 2월 9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문의** 1588-5212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뮤지컬 <맘미아>



뮤지컬 <맘미아>가 한국 공연 최초로 오리지널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뮤지컬 <맘미아>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댄싱퀸> <아이 해브 어 드림> 등 주옥같은 원곡을 만나보자. **일시** 11월 26일~2014년 3월 23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뮤지컬 <베르테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초연 제목인 <베르테르>로 제목을 바꾸고 다시 무대에 올린다. 폭발적인 가창력 임태경의 첫 번째 베르테르, 7년 만에 돌아온 엄기준의 베르테르를 기대해 보자. **일시** 12월 3일~2014년 1월 12일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1588-0688 **관람료**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연극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배우 김해자가 모노드라마를 통해 6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다. 백혈병에 걸린 열 살 소년 오스카와 소아 병동의 외래 간호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장미 할머니의 나이를 넘어서는 우정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시** 11월 15일~12월 29일 **장소** 타임스퀘어 CGV신한카드아트홀 **문의** 1588-0688 **관람료**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콘서트|

화려한 연주 실력을 뽐내다 랑랑 콘서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의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 협주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최초로 랑랑의 연주로 재해석한 쇼팽 발라드를 만난다.



내한 때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랑랑은 이번 내한 공연에서 이례적으로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 협주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1부에서는 쇼팽의 발라드 1번부터 4번까지, 4곡을 연주하며 2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지난 내한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수원시립 교향악단 연주, 김대진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랑랑 특유의 현란한 피아노 솔로 연주와 오케스트라 협주곡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 그의 다양한 연주를 기다린 클래식 팬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쇼팽 발라드는 랑랑이 이제껏 공연에서 거의 연주하지 않았던 레퍼토리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와 더불어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선보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는 우아하고 귀족적인 분위기의 작품으로 특히 랑랑이 연주하게 될 솔로 파트는 클래식 피아노 연주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랑랑은 이미 2007년 발매한 음반에서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특유의 활기 찬 연주와 신중함이 돋보이는 연주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연주자의 기술적인 기량을 뽐낼 수 있는 1악장과 3악장의 카덴차에서 랑랑의 놀라운 연주와 춤을 추듯 가볍고 경쾌한 느낌의 3악장 론도는 프로그램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11월 20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41-3183 **관람료** R석 17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막달리나 코제나 내한 공연



현존하는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이자 지휘자인 사이먼 래틀의 여인, 막달레나 코제나가 첫 내한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코제나의 핵심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 초기 바로크 작품, 몬테베르디와 동시대의 작곡가들을 다룬다. **일시** 11월 19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미샤 마이스키 콘서트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가 1988년 한국 데뷔 이후 25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국을 찾는다. 브루흐 콜 니드라이, 생상스 첼로 협주곡 1번,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의 주옥 같은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립 교향악단과 멋진 협주곡을 펼칠 예정이다. **일시** 12월 11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파보 에르비&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연주회



세계 지휘계를 평정하는 파보 에르비가 베토벤 교향곡을 준비하였다.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은 정통 독일 사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파리 오케스트라의 잇단 공연에서 폭풍과 같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일시** 12월 5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R석 22만원, S석 17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발렌티나 리사차 피아노 리사이틀



물 흐르듯 유연한 타건, 화려한 기교, 강력한 파워로 피아노를 지배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리사차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건반 위의 마녀', '피아노의 검투사'라는 별명을 대변해 주듯이 그녀의 레퍼토리는 화려한 기술, 엄청난 힘, 빠른 속도로 몰아치는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일시** 11월 25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44-5142 **관람료**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5만원

우리 역사 속 도자 형태에서 원형 찾기 <최홍선> 전

도예작가 최홍선은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글을 접하며 역사 속의 도자 형태에 대한 미감에 매료되었다. 그는 역사에 존재했던 도자 형태를 발해해 부피감 있는 형태를 평면화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기형도(器形圖) 세라민_33x39x2cm_2013

기형도(器形圖) 세라민_40x30x2cm_2013

기(器), 세라민_12x6, 9x6x5cm_2013

도예작가 최홍선은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 속의 도자 형태의 미감에 대한 관심과 고전 읽기에 애정이 있다. 이러한 관심과 애정은 '모든 것은 이미 거기(The Old)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번 개인전 작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 의미 있는 도자 형태를 발해하여 부피감 있는 형태를 평면화하였다. 기물 형태에 시선을 집중시키다 보면 입체의 단면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단면을 포착한 '것'들과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벽(癖)'과 '치(痴)'의 추구 경향과 지적 경향에 관련된 글을 접하며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사유에 경의를 담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빚었다.

최홍선은 지난 2009년 서울의 백혜영 갤러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 일본 나고야 등지에서 9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001년 <테라코타-원시적 미래>(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09년 세계도자비엔날레(여주 세계도자관)와 지난 2007년 <Future Is Here>(독일 아사펜부르크 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국내외 초대전을 가졌다. 2011년 스위스의 'Carouge' 국제도자전에 입상하였으며 2003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도예작가다. 현재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이천 한국도자재단 등에도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도자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번 전시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일시 11월 19~30일 장소 완물취미 문의 02-541-6480 관람료 무료

<카오스 투 테크네> 전



백진, installation view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기획전으로 <카오스 투 테크네(Chaos to Techne)>전을 개최한다. 도예가 '여선구'의 개인전과 젊은 도예가들의 'Esprit-테크놀로지'전사로 구성되었다. 작가 여선구의 첫 개인전에서는 원초적 우주인 카오스 '영감'의 세계를 표현한다. 일시 2014년 2월 16일까지 장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문의 055-340-7009 관람료 무료

<로버트 프랭크 사진> 전



Robert Frank, London, Gelatin silver print, 237 x 35.3cm, 1952, printed 1960s, Collection Fototeca gessum/Westphal, permanent loan Volkart Stiftung © Robert Frank

1950년대 당시의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을 담은 그의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20세기 후반 현대 사진의 방향성을 새로 정의했다고 평가 받는다. 이번 전시는 로버트 프랭크의 오리지널 프린트 115점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라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시 2014년 2월 9일까지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문의 02-418-1315 관람료 성인 6000원, 초중고 학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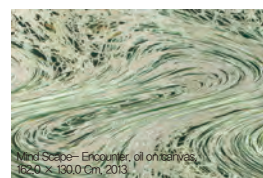
<나이트 스튜디오> 전



Jewyo Ryu, Dust Wind, 2011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이주요가 국내 최초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다. <나이트 스튜디오>전은 이주요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았다. 최근 작업 및 전시 공간에 맞춰 제작한 작업 등 20여 점으로 구성된다. 일시 2014년 1월 12일까지 장소 아트선재센터 문의 02-735-2623 관람료 무료

<Mind Scope-Condensation>



Mind Scope-Condensation, oil on canvas, 120.0 x 100.0 cm, 2013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감정의 응축 상태'를 주제로 캔버스 위에 풀어낸 작업들을 선보인다. 살아가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들과 감정의 호흡 관계를 화폭 위에 연출하였다. 캔버스 2개를 맞붙여 비일률적이며 비규칙적으로 이크릴 물감을 사용해 비벼 찍어내는 작업으로 '대화' 연작을 완성하였다.

일시 11월 13~19일 장소 KCDF갤러리 문의 02-733-9041 관람료 무료

올겨울 추천하는 소설 <안녕, 내 모든 것> <아크라 문서>

사람들은 기율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독서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은 겨울이다. 추운 바깥 날씨 탓에 실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계절이기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독서만큼 좋은 여가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명 예찬 <생명 교향곡>



한평생 산과 들, 온갖 곤충과 동물들을 벗삼아 자연과 생명에 대한 진정한 앎을 추구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힘써온 권오길 교수가 우리 강산의 사계절 생명 예찬을 담은 신작으로 돌아왔다. 저자가 강단을 떠난 후 깨달은 사계절의 변화무쌍함과 신비로움을 예찬하는 자연 관찰 일기다.

지은이 권오길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현명한 디자인 전략 <포어사이트 크리에이터>



디자인이 혁신의 돌파구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디자인의 효과가 입증된 지 오래다. 산업 디자이너이자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저자는 창조 산업 시대에 CEO들에게 제안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은이 아든태 출판사 세미콜론

파리를 만나다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파리에선 3년 넘게 살면서 파리자랑의 삶, 철학, 스타일에 서서히 빠져든 손미나 작가의 일상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습관, 교육, 사랑법 등 우리보다 한층 앞서 나간 정신적 선진국으로부터 하나하나 삶의 방법을 배우가는 진지한 학습자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지은이 손미나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예술의 아름다운 매혹 <영혼의 미술관>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 안고 한편으로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예술의 치유 기능에 대해 알랭 드 보통이 특유의 철학적 글쓰기를 통해 써 내려간 독특한 책이다. 알랭 드 보통이 미술사가 존 암스트롱과 대화하며 직접 엄선한 전 시대의 빼어난 예술작품 140여 점도 감상할 수 있다.

지은이 알랭 드 보통, 존 암스트롱 출판사 문학동네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의 삶과 고민을 날렵한 필치로 포착해 독자들의 무한한 공감과 지지를 얻으며 2000년대 한국소설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정이현의 새 장편 <안녕, 내 모든 것>이 출간되었다. 김일성이 죽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90년대 중반 강남 반포에서 함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은 세 명의 친구들이 나누는 한 시절의 사랑과 우정, 쓰러린 성장의 과정을 작가 특유의 날렵하고 매끄러운 필치로 그려낸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90년대 사건과 풍경은 독자들의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순례자>로 전 세계 169개국에서 출판되어 1억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돌아왔다. <아크라 문서>는 코엘료의 겪었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결론들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한 것. 심자군의 침략이 눈앞에 닥친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군중이 콥트인 현자와 나누는 대화를 기록한 작품으로, 코엘료는 군중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했다. 전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해 현자가 들려주는 답변은 곧 코엘료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해 얻은 깊은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안녕, 내 모든 것> 지은이 정이현 출판사 창비

<아크라 문서> 지은이 파울로 코엘료 출판사 문학동네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은 성경 속의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해 현대적인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작품이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12월 예정

공연 장소 유니버시아트센터

공연 티켓 S석 7명(1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은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라이언킹', '아이다' 등을 작사한 팀 라이스의 최초 공동 작업 작품으로, 성경 속의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전매 특허인 '송스루(Song-Through)' 형식으로 대사 없이 노래로만 구성되었으며 발라드, 로큰롤, 칼립소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색상의 의상 등 볼거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현대적인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이 작품은 해외에서 2만 회 이상 공연되었을 만큼 널리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월 샤롯데 씨어터에서 정식 라이선스로는 처음 상연되었으며,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모든 관객층이 즐길 수 있는 '힐링 뮤지컬'의 대명사가 될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번 앙코르 공연의 주인공 요셉 역으로 최근 <잭 더 리퍼>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의 대형 뮤지컬에 잇따라 캐스팅되며,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을 받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정동하, <엘리자벳> <몬테크 리스토> 등에서의 수려한 외모와 빼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은 뮤지컬계 명품 배우 김승대와 '가창력은 물론 이미지까지 싱크로율 100%' 라는 극찬을 받으며 만장일치로 캐스팅된 최고의 아이돌 양요섭(비스트), 최근 다양한 작품의 출연으로 인기몰이 중인 뮤지컬계의 신성 박영수가 캐스팅되었다. 해설자

역에는 <오페라의 유령> <맨 오브 라만차> 등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며 명품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혜경이 일찌감치 낙점되었으며, '미친 고음'으로 이미 가창력을 인정받은 리사가 초연에 이어 재연에도 캐스팅되었다. 또 뮤지컬 마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경선이 해설자로 나선다.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편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전 연령층이 즐기기에 좋은 작품이다. S

에디터 신정희 도움 주신 곳 ㈜라이브엔컴퍼니(070-4488-8522)



아세안을 사로잡은 K뷰티의 힘, 설화수

가장 한국적인 뷰티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매장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는 설화수가
아세안 국가에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설화수의 명성이 점차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글로벌 설화수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싱가포르의 상권 중심지인 오차드 로드에는 탕스 백화점 매장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내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다카시마야 백화점을 비롯해 총 4개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태국에도 2012년 10월 '센트럴 칠롬' 매장을 시작으로 태국 내 No. 1 매장인 시암파라곤에 입점해 현재 총 7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지난 10월 15일에는 100여명의 VIP 및 현지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런칭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와 태국 모두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현지 반응도 매우 뜨거운 편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설화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말레이시아 팍스 파빌리온에 설화수 1호 매장을 오픈한데 이어 6월 20일에는 팍스 거니 플라자에 설화수 2호 매장을 오픈했다. 11월 중순에는 팍스 원 우타마에도 설화수 3호 매장이 오픈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11월에는 말레이시아의 '트윈 타워' 이미지를 반영한 윤조 리미티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의 다이아몬드 플라자 백화점에 설화수 1호 매장이 7월 7일 오픈했다. 2012년 매출 기준 1위 백화점인 다이아몬드 플라자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점차 입소문과 제품 체험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곳 또한 11월 '하롱베이 이미지'를 반영한 윤조

90ml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설화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설화수 1호 매장이 오픈한 세부 백화점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으로 그랜드 인도네시아 몰 안에 입점해 있다. 11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소고 스나안에도 2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또 윤조에 센스의 경우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을 기념해 디자인된 리미티드 에디션을 12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S





page 26 | **Quality Life**

Anchae and Gyubang, the detached houses for women, were busier in long winter nights. Each November of the Lunar Calendar was called 'Dongjiheonmal', and there was even a ritual to mark the beginning of work in Gyubang. The daughters-in-law of each household made traditional socks for their in-laws. Through arduous work, the women of each household gathered to demonstrate their skills and pray for the well-being of their family until New Year's Day.



page 14 | **Reading Korean Culture**

Reading Korean Culture explores the commodities used by our Korean ancestors in their everyday life. Our ancestors liked to decorate ugly and filthy feet with beautiful ornaments. They refined leather and silk of times to ornament their shoes with colors and flowers. In the Joseon Dynasty, high-neck shoes were called 'Hwa' and low-neck shoes were called 'Hye'. Shoemakers were called 'Hwahyejang' or Gatbachi in the native Korean language.



page 40 | **Life with Sulwhasoo**

'Life with Sulwhasoo' meets cultural dignitaries or issue-makers to listen to their stories. Soo Young Kim, also known as the 'dream mentor', was a 'problem child' until middle school and took the GED to graduate from a vocational high school. She became the finalist in a quiz show and confidently entered a noted college. She even found a good job, but she faced another crisis as she was diagnosed with cancer. She delivers the message of hope to turn vague dreams into reality.



page 46 | **Art Class**

The Picasso Foundation in Malaga, the birthplace of Picasso, will lend some of the artworks of Picasso in its possession as part of its cultural exchange with Korea in celeb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Picasso's passing. This issue explores the many women who inspired him, his world of art and his life. This will be the largest exhibition of Picasso's works ever held in Korea, and will exhibit about 180 of the approximately 2,000 artworks of the Foundation.

page 53 | **11 Artists with Various Bows**

This issue introduces 11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on the art of bows. The artists have nothing in common. They are sculptors, designers, photographers, and architects whose backgrounds includ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pecialization in traditional bows, arrows, and arrow cases. They have come together to demonstrate their creative powers on a common theme, 'bows.'



page 72 | **2013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is year's Sulwha Cultural Exhibition conveys the timeless power and beauty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theme of "bows and arrows." Bows and arrows are a world heritage, but to us, who have been known as the "Dongyi (東夷) people" for our skills with the bows and arrows, it is a special traditional culture.



page 78 | **Trip of Korean Music**

This issue visits the National Gugak Center, which is successfully promoting Korean arts and music. The National Gugak Center is Korea's leading Gugak Center that strives to preserve, promote and recreate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Experience the magnificent yet organized music of the King in the concert hall with the orderliness of the Korean ancestors who pursued courtesy even in music. This issue visits a performance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Folk Performing Arts.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This issue introduces the OSULLOC Christmas Edition, which will be available during the Christmas season. The package expresses the blessings of Christmas delivered by the signature five-colored woodpecker of OSULLOC. It tells the exciting story of the Christmas festival in the fairy-tale island of Jeju. The package consists of Samdayeon Jeju Tangerine Green Tea and Jeju Island Dream Tea Leaves.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3년 12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11월 30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미안피니셔,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4년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여 피부의 생(生) 윤기를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녹차와 함께 포제한 홍삼 성분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하루 종일 생기 있는 피부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관람권(7명)

뮤지컬계의 신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으로 유명한 <요셉 어메이징>의 공연 관람권을 7명(5석, 1인 2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12월 중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유니버설아트센터 공연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2페이지 참조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 홍진원 서울 강남구 세곡동
- 김정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이수현 전북 익산시 부송동
- 엄윤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전신영 포항시 남구 상도동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관람권(6명)

- 신명봉 서울 송파구 송파동
- 이정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한윤경 강원 춘천시 지석로
- 장남선 서울 송파구 문정동
- 김선영 대전 대덕구 비래동
- 윤기을 광주 동구 산수동

★ 9/10월호 당첨자 선물은 11월 30일까지 보내 드립니다.